朝鮮日報
夕刊 四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米大統領選擧戰 遂、全國一齊開始

三日夜半까지에大勢決定乎

日本時間 四日午後二時頃

【紐育三日發同盟】 루즈벨트大統領이냐 랜든知事이냐 全世에 對한 審判을 이一戰에 賭한 大統領選擧戰은 마침내 三日全國一齊히 擧行되엿다 民主、共和兩黨은 모다 斷然 自黨의 勝利를 豫想하고 잇슴으로 더욱 滋味잇다 民主黨選擧委員長 파레遞信長官은 二日前後 二個月에 亘한 白熱的政戰의 戰跡을 回顧하면서 自信잇는 面貌로 말하기를

民主黨의 勝利는 壓倒的이다 一九三二年의 選擧에서는 選擧人四百七十二票를 獲得하엿스나 今回에는 이總數를 突破할것이다 下院議院의 選擧에서도 民主黨은 依然 現在의 壓倒的多數를 維持할것이다 兩院의三分의一 改選에잇서서도 民主黨은 六名乃至八名의 新議席을獲得하야 絶對多數를 維持할것이다

一方共和黨의 하밀론氏도 저지안케 氣焰을 吐하야曰

랜든氏는 選擧人五三一人中 적어도 三三〇을 獲得하고 當選할것은 틀림업다 或은 票數가더만흘는지도 알수업스나 別段 不可思議한것은 아니다

投票는四十八州에亘하야 三日早朝 逐次 時差를따라 開始되여 結果는 刻刻으로 公表되는데 有權者가 投票場에 殺到하여 三日午後 投票는 日沒과同時에 終了될것이다 紐育市와如한 有權者가만흔곳에서는 投票時間을 一時間延長하야 午後九時까지 投票를 許할터임으로 大勢가 決定되기는 三日夜半(日本時間四日午後二時)前後라고 觀測된다 三日天氣豫報에依하면 록키山脈西方大西洋岸一帶는晴 同山脈東方、東部及 中部地方은曇이나 大槪는 비가올듯하다함으로 有權者의 出場도 鈍하야 有權者總數七千五百萬人中 實際로投票할사람은 約四千五百萬人이라고 觀測된다 全國十二萬四千四百六十四個所의 投票場監理人事務員計算人等 六十一萬二千人은 準備萬端을整頓하고 待機하여잇다

【紐育三日發同盟】 루즈벨트냐 랜든이냐 米國國民의總意를決할 大統領選擧의投票는 三日早朝뉴햄프쉬州의小部 닥스빌드市를 端初로 全米四十八州 各地에서 開始되엿다 西部地方은 時差關係로 投票가 終了되기는 東部標準時로 三日午後十一時頃(日本時間四日午前九時)에 될模樣이다 各地의 天候는雨又는雪、그러치안흐면 曇天이나 二日夜兩大統領候補의 最後放送은 有權者의選擧熱을高上식혀 朝來各投票場의 投票者는 蜿蜒長蛇의 列를지여잇슴으로 投票數는 아마空前의 記錄에達하리라고 觀測된다 따라 最終結果가 判明되기는 從來보담 느질模樣이다(寫眞上은 루즈벨트氏 下는 랜든氏)

루大統領優勢!

再選은거의確實視

【紐育三日發同盟】 大統領選擧結果는 投票進捗과함께 逐次 各州로부터 發表되는데 랜든知事의 地盤칸사스州까지 루즈벨트大統領의 優勢가 傳하는바 斷然 루즈벨트大統領에게 有利하다 루즈벨트大統領이 結局一般投票에서 二千五百萬 選擧人四百을確保하고 疑心업시 再選되리라는 觀測이 有力한바 三日午後四時三十分(日本時間四日午前六時三十分)現在의 開票數는 左와如하다

루즈벨트大統領 四〇、六七一
랜든知事 二八、五五〇

須磨、高折衝繼續

【南京三日發同盟】 須磨總領事는 三日午後二時亞洲司長高宗武氏를 私邸에訪問하고 約三時間에 亘하야 川越、張群第七次會談의 豫備折衝을 行하엿는데 須磨總領事는 歸任後最初의 折衝인만큼 非常한緊張을示하고잇다 右會談에잇서서 須磨總領事는外務省의 新訓令에基하야 日本側의 最後的態度에對하야 詳細說明하는同時에 이에對한 中國側의 誠意의具體的披瀝을 要望하엿다 高宗武司長은 中國側의意向을 全面的으로 述한다음 兩者는 意見相違點에對하야 會商하고 解決方式發見에 熱烈한討論을 繼續하야 相當히 核心에 드리가 議論을行한 模樣이데 問題는 重大且微妙를 極히하여잇고 더욱 簡單히 意見一致되지 못하엿슴으로 今後 豫備折衝을 繼續하야 圓滿解決에 努力하기로 約하고 同五時半 會見을 終了하엿다

五日、新議事堂에 天皇陛下行幸

【東京電話同盟】 新議事堂正式竣工式典은 七日에 擧行되려니와 이에압서 五日 天皇陛下의 行幸을 仰하와 憲政最高의 殿堂으로 其光榮을極할터이다 天皇陛下께압서는 同日午前十時 鈴木侍從長 松平宮相을 거나리시압고 略式自動車로 宮城御出門 參謀本部前을 거치 同五分 議事堂正面玄關에 着御 馬場藏相及 近衛 富田兩院議長以下의 出迎을 바드시압고 一旦便殿에入御 御少憩하압신後 馬場藏相 近衛 富田 松平 岡田貴衆兩院正副議長外 營繕管財局關係者十數名에 對하야 單獨拜謁을 吩咐하압시고 馬場、近衛、富田三氏의 奏上을 天聽하압신後 營繕管財局工務部長 大熊喜邦博士의 御說明으로 議事堂內를 約五十分間 御巡覽하압신後 再次便殿에入御 御 國表에依하야 다시 各種工事從事者를 御嘉納、同十一時五十分 御發 宮城에 還幸하압실 御豫定이시다 그리고 行幸에際하야 御記念品으로 貴衆兩院에 獻上品으로 純銀製의 六百分之一 新議事堂模型을御嘉納 銀鉢 各一個式을 下賜하압실터이시다

湖南省長沙에서 日本人又復遭難

自宅에서睡眠中瀕死의重傷

【上海三日發同盟】 中國側某情報에依하면 湖南省長沙의 日本人金融組合書記 山岸實藏(原籍東京府)은二日午前四時頃 長沙太平門外의自宅에서睡眠中 어떠한者에게 頭部顏面其他에 合計 八個所를 負傷하야 瀕死의重傷을 負하고 日本人經營의 同仁病院에서 加療中이다 長沙領事和田書記生과 湖南警察部는 犯人逮捕에 努力하는同時에 湖南省政府에 嚴重抗議하엿다

難波領事嚴重히 抗議

【漢口三日發長沙來電】 山岸實藏氏傷害事件은 中國人의 犯行인것이 明白함으로 難波領事代理는 二日午後湖南省政府에 對하야嚴重抗議하는同時에 犯人逮捕 在留日本人의 保護及 將來의保障等의要求를 提出하엿다

政黨의 政權擔當은 當分間實現無望

根本的으로組織改革을斷行할必要가잇다

陸軍、議會制度改革論極強硬

【東京電話同盟】 陸軍은 中央行政機構改革과함께 憲法條章에則하야 時運의 進展에 應하야 議會의現狀에 徵하야 議院法及選擧法을 刷新하기를 要望하는同時에 議會制度의 根本的再檢討를強調하고 五相會議及 四相會議의經過 議會制度改革問題를契機로 其態度를 尖銳化하고잇는 政黨의 動向에 深甚注意하고잇는바 陸軍部內에는 議會制度刷新의氣運이 漸次軌道에 올라 世論의 中心化를 策하고잇는것은 國家를爲하야 慶賀할것이라한다 此際 軍部의對政黨態度를 闡明하고 現下不明朗한 政界를肅淸하야 可及的速히 純眞且強力한 自主的政黨의 出現에 齎할것이라는 意見이 漸次 有力化하고잇는것은 政黨과 軍部關係가 紛糾되여잇는 此際 極히 注目할 만한것으로 其意見의 骨子는 左와如하다

一、滿洲事變以來 旣成政黨의凋落相은 周知하는바로 犬養內閣以後 政黨은 衆議院에 多數를 擁하면서도 마침내 政權으로부터 離脫되엿다 今日旣成政黨의 主張인 政黨內閣制度의 運用은 果然 可한지否한지 極히 難問視될뿐만아니라 政黨이 過去에잇서 腐敗墮落을 依然淸算치못하고 根底부터更生의 熱意가업는 現狀에잇서서는 政權擔當과如한것은 當分間豫想하기困難한바로 政治가 今日의貧窮을 招來한責任의太半은 旣成政黨의 無氣力에 負할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수업다

一、國際關係가 緊迫된 重大한 期間에 政權爭奪로 終始하여온 政黨政治의弊는 마침내今日國政의 全面的停頓을 招來하야 二、二六事件과如한 不祥事件을 惹起하고 國家의前途에 憂慮할만한 事態를 釀成되게된것이다 庶政一新의要望이 擡頭된것은 時勢에鑑하야 當然한바로 只今에 이를實現치안흐면 國家의 前途가深憂된다

如斯히 旣成政黨은 凋落疲弊하야 政權을擔當한 能力이업는 現狀에잇서서는 陸軍으로서는 國防의充實及 國防과 不可分한 關係를가진 國勢의彌增進 庶政一新의 具現을要望하기爲하야 速히 純眞強力한 擧國的政治勢力의 出現을希望한다

一、今日의 旣成政黨은 速히其腐敗相을 淸算하고 根本的組織改革을 斷行하야 眞正으로 擧國的政黨으로 更生하야 議會政治의 運用에 當할것으로 現在와如히 政權輪廻의 白日夢을 追함과如한 不眞實한態度를 放棄치안는限 政黨의更生은 바랄수업다 陸軍은 旣成政黨이 速히 國家的政黨으로 更生하야 協力內閣의 出現을 希望하는바이다

軍部案에對하야 民政黨態度强硬

現役軍人의政治干與의權을 問題로하자는論有力

【東京電話同盟】 軍部의 行政機構改革意見에 對하야 民政黨에서는 依然强硬論을 主張하야 四日午後에 開催된 幹部會에서도 軍部案을 萬若 寺內陸相이 承認하고 더욱이를 廣田首相이 採擇하야 政府案立案의 基礎를 만들時에는 我黨으로서는 他派와 協力하나 敢然 蹶起하야 抗爭할것이다 그리고 軍部案이 一部意見이라고 하면 前議會에서 行한 寺內陸相의 言明에 反하야 曖昧하 이러한 私案이 發表되는 事實에 鑑하야 此際現役軍人의 政治干與의權을 問題로 할것이다 라는 意見이 表面化할 形勢이다 따라 黨幹部로서는 此等黨內空氣에 鑑하야 近近適當한機會에 政府의 眞意를 質하야 善處할意向이다

陸海兩次官 軍部案具體的說明

【東京電話同盟】 行政機構改革에 關한 四相會議及 五相會議는 旣報한바와如히 四日午後二時부터 大藏大臣官邸、內務大臣官邸에서 各一回會合을 開催하고 其後 每週一回式開催하야 審議促進을圖할 意向이다 그리고 寺內、永野兩軍部大臣으로부터 共同提案된 軍部參考案은 四日第一次會議前에 프린트하야 各閣僚에게配付될터임으로 兩會議는 必然的으로 右軍部案이 中心되리라고 豫想되나 各閣僚는 아직軍部案에對하야 正式으로 說明을듯지 못하엿슴으로 爲先軍部의 具體的說明을 聽取할 必要가잇다는 意見이 有力하게되엿는바 第一回會議에잇서 梅津陸軍次官及長谷川海軍次官이 兩閣僚會議에 出席하야 軍部案에對하야 具體的說明을 行할模樣이다

話題論說 地中海制覇戰

지난一日 伊太利뭇소리니首相은 新外交政策을 宣明하는演說가운데서 特히 英國國民에게 對하야 「地中海는 英國에잇서서도 必要不可缺의 航路이거니와 伊太利에잇서서는 더욱 生命線이다 萬若 羅馬帝國이 支配하든地中海를 엇더한나라가 閉鎖하는일이잇다고하면 伊太利國民은 未曾有의決心을가지고 奮起할것이다」라는 意味의 放送을하야 英國朝野는 勿論 佛國도 이에對한不滿을 表示하고잇다

◇

地中海는 自古로 歐羅巴의政治經濟勢力의 錯綜地帶이며 同時에 그文化의搖籃이기도하다 埃及、希臘、羅馬의文明이 繁榮한光彩를 나타낸것도 여긔이며 「카르타고」「페니키아」가 그 榮華를 자랑한것도 亦是地中海沿岸이엿다 그리고 中世紀에일으러서는 地中海는 歐洲에서 亞細亞로 通하는 大道가되야 商人、旅客이 모다 이길을 通하얏섯고 有名한 十字軍도 여기를 通하야 「콘스탄티노풀」로 갓든것이다

◇

近代에일으러 歐洲列强이 外部로 發展하야 亞細亞及亞弗利加의兩大陸에 植民地를 經營하게됨에미처 이地中海는一層더 重要性을띄게되고 地中海制覇戰도 이때부터 더욱猛烈해진것이다 卽英國으로보면 地中海는 本國과印度、濠洲、埃及等地로 通하는要路이고 佛國으로보드래도 아푸리카殖民地及 印度支那에 通하는 要路일뿐아니라 一朝有事時에 殖民地軍隊를 本國으로 옴기는 生命線이다 그리고 伊太利로보면 地中海는 그의 生命線이다 一旦有事時에 이바다의 制海權을 빼앗기면 食糧、石炭等의 補給이 끈허질것이며 더욱 에디오피아를 征服한以後로는 植民地經營上으로 보드래도 地中海를 制覇하지안을수업는 形便이다

◇

이와가티 英佛伊三國의 角逐地帶인 地中海는 近代國家가 發達되야 帝國主義의 물결이 놉하가면 놉하갈수록 地中海制覇爭奪의 물결은 한層더 놉하저서 近代에 일으러서만도 地中海制覇戰의 歷史는 매우 錯雜한것이 잇거니와 現在로는 周知하는 바와가티 亦是 英國이 그制海權을 쥐고잇다. 바다의나라英國은 벌서十六世紀後半부터 西班牙의制海權을 驅逐하고 「지브랄타르」와 「키프로스」島 「말타」島를 손에너코 다시 「이오니아」諸島의 保護權을 엇게됨에따라 英國의獨占的海上權의 基礎가 確立한것이다 그後 크리미아戰役에서 露西亞를 驅逐하고 수에즈運河의實權을 잡엇고 다시 그後에 埃及을 保護國化하고 「팔레스타나」의 委任統治를 맛게된以後 그獨占的制海權은더욱堅固해진것이다

◇

오늘날 歐洲政界는 마치伊太利가 터드리는 爆彈的行動의 뒤收拾을 하고잇는것과 가튼現像인데 伊太利의 地中海制覇主張도 그重大性에잇서 亦是 한개의爆彈宣言이안일까 한다 (李甲燮)

川越、張第七次會談 今週末頃에再開乎

【南京三日發同盟】 須磨總領事는 亞洲司長高宗武氏와 會見한後 川越大使 若杉參事官 田尻書記官 喜多大使館附武官 中原陸軍武官等에게 折衝顚末을 報告하고 今後對策에 對하야 妥協하엿다 三日會見에서는 아직 完全한 結論을 엇지못하엿고 다시 二三日後에 基礎交涉을 行하기로되엿스므로 川越、張群第七次會談은 今週末頃에될 模樣이다。

平壤、仁川、新義州의 都市計畫案審査

五日、市街地計畫委員會에서

總督府에서 五日에 市街地計畫委員會를 열고 日前平壤、仁川、新義州의 各府會에 都市計畫案을 諮問中이든바 各府會의 答申을 委員會에서 審査決定한後 總督의 決裁를 經하야 곳確定案의 實行을 할터이라한다

大竹內務局長 滿洲國으로?

朝滿人事交換開始

南總督의 朝滿一如政策의 具現化를爲하야 日前에 圖們에서 植田關東軍司令官과 會見하야 重要協議를하엿다함은 旣報한바와 갓거니와 爲先 其第一步로 朝滿間人事交換問題는 方今 總督府에서 銓衡中이라는데 確實한側에서 探問한바에依하면 大竹內務局長은 滿洲國某大官에就任하고 內務局長의後任에는 現滿洲國總務廳長 大達氏로 內定하엿다한다 그리고 滿洲國總務廳長後任에는 財政部次長 星野氏의 任命은 確定的이라한다

漢口에서善後策激戰

【漢口三日發同盟】 長沙에서發生한 山岸事件에 對策을講究하기爲하야 漢口總領事는 目下事務打合次로 漢口에來着하엿는데 長沙領事代理 高井末彥氏를 中心으로 日比野第十一戰隊司令官 中津兩陸海軍武官의 參集을求하야 午前十時부터 總領事官邸에서 同事件의善後策及 居留民保護에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그 結果 高井領事代理는 三日午後汽車로急遽歸任하기로 決하엿다 그리고 長沙에는 數日前까지 軍艦堅田이 在碇하고 잇섯스나 揚子江의 減水로 下江하야 最近漢口에 到着한것이다

兩艦、長沙에急航

【漢口三日發同盟】 漢口에碇泊하고잇는 軍艦比良及 小鷹에對하야 長沙急行命令이나려 兩艦은 目下出動準備中이고 그리고 長江上流는 減水되여잇슴으로 比良은 水深이 許하는곳까지 上江할터이나 小鷹은吃水가淺하야 아마으로 長沙까지 溯江할수잇슬듯하다

內田氏收賄確實

起訴收容키로決定

【東京電話同盟】 國鐵疑獄의 最高峰으로 四日早朝에 再次召喚된 前鐵道大臣內田信也氏는 午前十時까지 取調한結果 收賄嫌疑가 차차明確하게되엿슴으로 檢察當局은 斷乎起訴하기로 決定하고 今日中에 手續을取하야 卽時 市谷未決刑務所에 收容하기로되엿다

【東京電話同盟】 再然國鐵疑獄으로 去月三十一日 東京地方檢事局에 召喚된前鐵相 內田信也氏(五七)는 四日午前六時四十分 飯村五郎代議士 高橋邦夫 秘書와함께 任意出頭의 形式으로再次召喚되여 裁判所構內 陪審員宿舍三層假調室에서 有安次席 馬場兩檢事로부터 取調를受하엿다

太原事件의交涉 閻錫山氏聲明

【上海三日發同盟】 太原事件으로 時局이 極히 緊張된 此際 閻錫山氏는 二日 同事件의 交涉其他에對하야 左와如히 强硬한 스테이트멘트를 發表하엿다

余는 今回 洛陽에서 行政院長蔣介石氏와 會見한結果 國家의一切가 長足의 進步를 遂하고잇는事實을 認定하엿다 國民政府는 和平救國主義下에 努力하고잇다 武力으로써 侵入하여오는者에 對하여는 死로써 抵抗하야 國土保存에 努力할것이다 過去에잇서 山西省의 對外交涉은 社會人民을 刺戟할것을 憂慮하고 內容의 公表를 避하여왓스나 이것이 도리혀 當局者의苦衷이 國民에게 理解되지안는 結果를 齎來하엿다 我等이 過去의外交交涉에잇서 取하여온 弱國的態度와 屈辱的交涉方法은 도리혀 相對側의 一方的宣傳으로 誤解를 招致하는傾向이잇서 兩國의敦睦을 求하려다가 도리혀 惡感情을 惹起하는 結果를 招來하엿다 그리고政府의 苦衷이國民에게 認定되지 안코 마치政府가 國家의主權을 放棄하지안헛는가하는 疑心에서 益益政府를 困難한境地에 陷케하엿다 故로 今後 對外交涉方針을고처 其內容을 公表할것이다

人事·集會

▲古庄逸夫氏(京城稅務監督局長) 稅務監督局移轉人事次來社
▲金榮洙氏(新任价川郡守)六日午後三時半京城驛發赴任
▲鄭魯湜氏 府內敦岩町四二四의六으로轉居

蘇聯에對한態度 히氏와相異

伊首相宣言과外界의批評

【羅馬一日發同盟】 뭇솔리니首相의 新外交政策宣言에關하야 羅馬外交界에서는 特히 對獨、對英、對共產主義의 三政策을 重要視하고 如左한 批評을 내리고잇다

一、뭇솔리니首相은 獨逸에 對해서는 獨伊提携의 具體化라고할까가튼것을 强調치안코 單只伯林會談以前부터 分明하엿든 對獨政策의 原則을 强調하고잇는데 不過하다

一、英國에 對해서는 特히 平和政策을 提唱하엿는데 이는 地中海의 英伊間의諒解로 兩國間의 衝突을 避하기爲하야 자못 必要함으로써다

一、蘇聯邦에 對해서는 히틀러總統과는 色彩를달리하야 反共產軍을 云云하지 안헛다 그러나 伊太利政府가 社會的經濟的方面에 基하야 共產主義에 反對하는것은 지금에 始作된것이 아니다 如斯한 誤謬는 資本主義의 境遇에도 同樣이다

一、뭇솔리니首相이 西班牙問題及 小協商國關係에 言及치안흔것과 共產主義를 排擊하면서 特히 蘇聯政府에 關하야 述치안흔것은 注目된다

本社參觀

▲私立永新學校生徒三十名 陸在崗氏引率下에本社見學
▲尙州郡農林業係員一行十人 林石鎬氏引率下 本社參觀

八一一錄

◇米國大統領 選擧戰況 繼續入電。大勢는 루즈벨트氏에有利하다고。
◇뉴딜政策도 成功은 못햇스나 후버政策보다는 景氣가조앗든 때문。
◇全世界가 인플레政策時代라 米國엔들 이 例를 찌칠손가。
◇伊太利의 에國合併、獨逸이 이미 承認、墺國이 事實上承認。
◇聯盟의 倂合不承認主義도 結局 崩壞。
◇政治는 實力關係、弱한 에國만이 불쌍。
◇都市計劃、鐵道網擴張、工業建設等等 朝鮮도 날로近代化。
◇近代化는 贊成、文明化는 希望。그러나 反面의 敗退者를 救濟할方針은 무엇?

現代朝鮮長篇小說全集 豫約募集

●朝鮮初有의歷史的壯擧!! 漢圖創立二十週年記念出版●

第一期 豪華版全十卷

第一卷 故鄉(上) 李箕永
第二卷 故鄉(下) 李箕永
第三卷 異次頓의死 李光洙
第四卷 第二의運命 李泰俊
第五卷 牡丹꼿필때 廉想涉
第六卷 靑年金玉均 金基鎭
第七卷 純情海峽 咸大勳
第八卷 三曲線 張赫宙
第九卷 織女星(上) 沈熏
第十卷 織女星(下) 沈熏

諸名家의讚辭!!

朱耀翰氏曰
漢圖가 「現代朝鮮長篇小說全集」을刊行하게된것은 實로 朝鮮出版界의 壯擧이다。 아직朝鮮文學이 자랑할만한 歷史的出版物이 업는이때에 이全集의刊行이야말로 朝鮮文化建設의 劃期的大事業이다 讀書子들이 刊行되는대로 購讀하여 此業에 協力하기를 바라고저한다。

李允宰氏曰
現代朝鮮長篇小說集刊行의事는 朝鮮新文學이 생긴 四十年에 처음잇는일이니 자랑할만한 일이다。 이全集은全朝鮮的으로 이미期待가만흔만큼 우리讀書界에 만흔 刺戟을주리라고밋는다。 이 事業이 하루바삐 完成되기를 바란다。

白鐵氏曰
眞實로偉大한文藝作品은 短篇보다도 長篇에서만 大한스케일과形式을기다려서만 實現되기 때문에 朝鮮文壇에잇서서는 作品으로서 長篇小說을 너무 無視해왓스니 이것이 朝鮮文學이 成長못한 重大原因의하나다。 單純히 이한가지 意味로만보더라도 이全集의出版은歷史的意義가크다。 漢圖의壯擧를 이全集이 家庭의 良書가되고 人民의 至寶가될 것을 기뻐한다。

!!朝鮮文學의世界的水準을보라!!

故鄉 李箕永作

第一回配本 (上)
京鄉各書店에實物見本이有함

金台俊氏曰
朝鮮農村을 背景으로한 世界의代表作으로 春園의「흙」과 沈熏의「常綠樹」와 李箕永의「故鄉」을 들수잇다。「흙」보다도「常綠樹」보다도 보담進步的인作品이「故鄉」이다。「故鄉」은語彙의豊富하기로도 以上의 二作을勝한다、文學이 變化無窮한現實的現象의 言語를通한 形象化이고 人間이 理解하는 最大限의實感을要求하는것이라면 우리는 「인동이」와 「방개」의姦通、「두상의원앙」等 場面에서 더욱 逼眞을 느낀다 우리는 어든것은「이데오로기」요、 일은것도 藝術이 아니라」라는 反語를 「故鄉」에서 어든것을 깃버한다。

兪鎭午氏曰
『故鄉』은 朝鮮文壇이 가진 最高의 자랑이다 그 構想의 緻密、그 「레알」하고 유모어한 筆致와 老練한 手法에는 아직 氏를 따를사람이 업슬것이다。

金基鎭氏曰
朝鮮文學三十年의 結晶은 果然 이『故鄉』을 어듬으로써 燦然히 빗난다 할것이다 該作이 新聞에 連載되엿슬때 數百萬讀者의 心琴을 울니든 劃期的 事實이 이제 單行本으로써 出版됨에 際하야 새로이 記憶된다。

豫約規定
◇全十卷、四六判、九포인트一段組、各卷마다 四五〇頁以上六〇〇頁、雅麗한裝幀、各卷마다作者寫眞、略傳、著作年譜添付
◇昭和十一年十一月부터每月一卷式
◇會費每月一圓五十錢 及送料十錢(海外二十錢)
◇本社나 最寄各書店으로 申込하시요
◇本社로 直接申込하시는분에게는 雜誌「文藝」를 無代進呈
◇申込金은 업스니 會費를 振替로 拂込하시면 고맙겟습니다

內容見本進呈
頒價 每月一冊 一圓五十錢

京城府堅志町三十二番地・振替京城七六六〇番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二)四七七九

强盜脅威下의 大京城

連二次‖元町에 覆面强盜가 出現

郵便所襲擊失敗後에 被逮

지난달십칠일오전한시 부내원정(元町)이정목 일번지 담배가가굴숙차(掘勝次)의 집에드러가든 복면강도사건이 거진 한달동안이나 가까워오도록 이제것 이러타할만한 해결을짓지못한이지음 또 룡산서(龍山署)관내에서 강도사건이발생되엿다

나흔날 오전두시반쯤되여 원정삼정목우편소(元町三丁目郵便所)소장 원등림수(遠藤林壽)(五二)씨의 집에 보자기로 얼골을가리고 "나이트·캡"을 쓴후 복면강도한명이 뒤문고리를 벗기고 드러가서 때마침 큰방에서 곤히자고잇든 주인원등씨를 깨워이르킨후 가정드금[?]으로 위협하면서 『돈을내노치안흐면 죽인다』고 위협하므로 현금삼원을 선선히 내주엇스나 도적은이에불응하고 곡청신만흔돈이 잇슬터인즉 다내노호라고 다시협박하며 주인을압세운다음 금고잇는쪽으로 가든길에 원등씨는 도적이 한눈파는틈을 타서달려드러 목을껴안고 『도적이야!』하고 고함을 치자 여페방에서 숙직하고잇든 그우편소사무원 박로태(朴魯泰)(一八) 좌등정치(佐藤貞治)(二○) 두명이 놀라깨여 가담해가지고 한바탕활극을 비저내인끄테 어렵지안케 도적을 붓잡어가지고 곧 소관룡산서로 급보하여 달려간 그서형사대에게 포박되엿다(사진은 원면이범인)

二、三次犯行의 同一犯으로 判明

龍山强盜事件一段落

룡산원정삼정목우편소에 드러갓든 강도를 붓잡은 룡산서에서는 곳 그서로 류치하고 그 밤을새여 엄중한문초를 한결과 도적은 부내대흥정(大興町)록십륙번지무직 단종완(段鍾完)(二三)으로 수년전에 그우편소가 다른사람의 경영이엇슬당시 사무원으로 얼마동안일을 보앗든니 만치 그우편소내정을 잘아는터이라한다

따라서 이자를문초한끄테 지난번굴숙차의집에 이러낫든 강도사건도 단종완 자신이 저질는범행으로 자백하기에 이르럿슴으로 이로써 룡산서관내 강도사건두가지는 완전히해결을지은것이다

竹島燈臺修繕

전남목포(木浦)바다의 죽도등대(竹島燈臺)는 저난번에 등롱(燈籠)수선공사를 하기위하야본등(本燈)을 철거하고 가등(假燈)을 켜고잇든중 요지음에 그공사가 완성되엿스므로 지난일일부터 본등을켜고잇다 항행하는선박은 주의하기를 바란다한다

不審訊問에 걸린竊盜犯

충북 진천군(忠北鎭川郡)출생으로 일정한 주소가업는 채대석(蔡大錫)(二○)은 이일오전아홉시쯤에 부내합정(蛤町)부근에서 서대문서원에게 불심심문을 밧고 도주하려는것을 동서에인치하여다가 취조한결과 그는십월이십칠일 영등포정(永登浦町)황귀병(黃貴炳)의 집에서 내의 목도리등 방한구와양복을 합하야 시가약삼십여원어치를 훔친 사실을 자백하엿다고한다

培材가나은短距離王 金裕澤君今日凱旋

나어린중등학생의몸으로 일본내지의 올림픽단거리 대표선수를 비롯하야 사게의준예들을 단숨에제치고 일약단거리왕에 군림한 배재고보(培材高普)사년생김유택(金裕澤)(一九)군은 영예의전일본 백메돌선수권을 선물로금사일오후세시삼십분 경성역착렬차로 개선하엿는데 역두에는모교의 직원과 동창들의성대한출영이잇섯다

綜合競技蹴球大會授賞式 上은 會長尹致昊氏로부터 本社寄贈의 優勝盃를 遞專軍에게 授與하는光景 下는 中等部에 優勝한 儆新軍

朝鮮人農業移民의 移民地域을 制限

‖安東、間島兩省과盤石[illegible]三縣‖ 圖們會議서 最後決定

총독부에서는 조선인의 만주이민실시에 대하야는 이민실시기관으로 이미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會社)를 창립하고 명년부터 대규모적 이민을 실시할터이라함은 루보한바와 갓거니와 지금까지 이민정책에 잇서 가장중대한 문제로 만주국내의이민후보지의 지역제한에 대하야 여러가지 주장이잇서 결정을짓지못하고잇든바 이번에 도문(圖們)에서 남(南)총독과 식전(植田)군사령관과의 회견 도죽하(竹下)관동군제삼피장과 상천(相川)총독부외사과장과의 회견에서 최후의 결정을 다음과가티 하엿다한다 즉조선인의 이민후보지의 큰구역으로는 안동성(安東省)전부와 간도성(間島省)전부도이에 린접한 반석현(盤石縣)[illegible]현([illegible]縣)으로구역을 제한하게로 확정하엿다 따라서 금후이민은 바다시 전긔구역내로 제한될뿐만아니라 금후자유이민의 통제와 각현지의 류랑민을 통제하야전긔구역으로 집단지휘할것도물론이라한다 이것은 농업 이민에한한것이고 일반상공업자는 각지에 분산재주함도무방하지만 농업이민만은 봉재래에 만히 실시되어오든 봉천성(奉天省)가튼 곳에는 갈수업게되엇다 또 일본내지인의 이민은 북만과 중남만주의 각지에 실시할것으로 결정된 모양이다

京城稅務監督局新築落成

경성세무감독국(京城稅務監督局)에서는 그동안 부내태평통일정목십팔번지에 새청사를 신축중이든바 요사이 준공되엿슴으로 사일부터는 새청사에서 사무를 취급한다고한다

六千餘石減收

東津江海溢被害

【全州支局電話】 기보=동진강(東津江)연안의 해일(海溢)로말미암은 홍수의 피해상항은 사일오전까지에 판명되엇는바 이러하다 전답침수면적은 륙백사십이정보로 김제군(金堤郡)에 오백구십이정보 부안군(扶安郡)에 사십삼정보 정읍(井邑)에 십정보이며 가옥침수는 이백십구호이다 제방의 파괴된 연장은 사천간으로 동진강연안에 일천오백간 해안(海岸)에 이천오백간이다 벼를 베여서 재여두엇든 무덕이가 물에 잠겨서 품질이 나빠젓스므로 상당가량 감수될 예상인데 일단보(段步)에 석섬닷말식으로 평균수확을 한다고 보드라도 합계륙천칠백사십석이 감수되리라하며 금전으로환산하면 십만이천원가량 이라한다 가옥의 전괴된것은 륙호 반괴된것은 십삼호이다 인축의 피해는 업스나 리재민은 이백사십호에 일천여명이나된다 시급히 구제를해야 될사람이 팔십명이나되는데 김제군에서는 일일저녁부터 김제군죽산면대창리(竹山面大倉里)교본농장(橋本農場)에 구호본부를두고 주먹밥을 지여서 림시구호를하고잇다

홍수가 미러다칠그당시의 동진강수위(水位)의 표고(標高)는 팔척팔촌으로 제방노피 구척오촌에 달하기전에는 범람하지 안헛슬것이나 만조(滿潮)때엿고 동시에 심해스므로 풍랑이 석자나노피넘처드러서 드디여 제방이 파괴하게되엇다 이라한다

제방의 복구비는 십만원가량 걸릴모양인데 전북도청에서는수일전에 총독부에 칠만원의보조신청을하고잇다

전북토목과장은 말하기를 시급히복구해야하겟스나 총독부로부터 보조금이 나와야하겟는데 그동안 대지주들과 상의하야임시수라도 속히할터이라한다

朝滿警備合作

國境一帶에 一大警察뿔럭形成

細目協定後에實施

일전 남(南)총독과 식전(植田)군사령관의 회견측 소위도문(圖們)협정에의한 조선과 만주의 경비합작문제에대하야 그렬츅에관하야는 이미 삼교(三橋)경무국장과 동조(東條)헌병사령관과의 회견에서 일치되얏슴으로 경무국에서는 어에대한세목협정을 금년안으로 결정하야 금년안으로 경비합작을 실현식힐터이라한다

그럼으로 삼교경무국장은 일간 만주에건너가서 관동군헌병대 만주국경무당국자와 협의하야 이에관한세목을 협정할터이라는데 이에따라서 압록강과두만강을 사이에둔 조선과만주의국경일대의 일정한지역에는 두곳경비긔관이 완전히 일대뿔럭을결성하야 일체가되야 경비에당하게될터이라한다

이것은 장래에잇서서 조선만주봉국일대의 경찰뿔럭을 완성할선제로서 경비관계는 물론일반경찰행경에 잇서서도 쌍방의긴밀한 련락에의하야 사실상국경이업서진날이다 따라서국경일대의 일반범죄취체와 무장토비단의 토벌에도 일대이상(異狀)을일으킬것으로 매우주목된다

碧潼對岸에 反滿軍出現

【新義州】 지난 삼십일일 오전세시 벽동서 오북(吾北)주재소대안 관전현 대청구(寬甸縣大青溝)에 반만군 왕봉각(王鳳閣)일파 일백오십명이 나타나 부락민을 협박하고 금품을강탈한다는 정보를밧고 석주자(石柱子)주비대 소림(小林)대위이하○○명과 그곳경찰서장이하 서원열한명이 출동하야 교전이십분으로 격퇴식히엿는데 교전중에 반만군세명을 사살하고 이편에도 수비대원한명이 부상을 당하야 목하 치료중이라한다

永登浦에火災 빠락一棟全燒

【永登浦】 삼일오후십일시이십분 영등포 당산정(堂山町)삼백오십이번지 정현극(鄭顯極)소유 빠락 아궁에서 출화되여 동가를 전소하고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백원가량이며 원인은주인이 온돌아궁에 불을 때이고 비인채로 나간틈에 바람벽파장에 인화가된닷이라한다

昨夜의暴雨로 京義線一時不通

삼일밤에 내린 비때문에 나흣날 오전세시오십삼분 경의선 개성=토성(開城=土城)사이의 장단천(長湍川)다리 고치든곳에잇든『센드』를 흙더미가 문허지며 선로 한『미돌』가량이 가러안저서 긔차통행이 위험하게되엿기 때문에 사흣날오후열시 오십오분 서울을떠나 안동(安東)으로 가든 제구렬차는 현장에서한시간남짓하게 멈추고섯다가 개성으로 되도라와서 또부산으로가든 『히까리』는 토성서복구되기를 기다리기까닭에 오전세시오분서울을떠난『히까리』는서울서 오십오분늦게 떠나서부산으로갓다 현장은 계원이필사의 노력을한결과 나흣날새벽네시십오분개통됏고 제이렬차『히까리』는 세시간동안이나 개성서 지체하다가 부산으로갓다 그리고 제구렬차는 개성서 제일 렬차『히까리』뒤에 떠난까닭에네시간사십륙분더되게안동으로떠낫다

土兵頭目刺殺

【熱河一日發同盟】 녕목부대(鈴木部隊)發表=부신현(阜新縣)방면에서토병벌중의 송정(松井)부대의 삼(森)야본(野本)야본(野本)상병사는 이십구일밤중에 대흥장(大興莊)에서 토병단두목 서품(徐品一)과 격투하야 이를 자살하엿는데 상병사는 이격투에 부상하엿다

白麟濟氏洋行

경성의학전문학교교수로서 동부속병원외과과장으로잇는 의학박사 백린제(白麟濟)씨는 이번조선총독부 재외연구원의임무를띄고 오는륙일오후세시 경성역을떠나 십일일에 신호(神戶)를출범의 정국환(靖國丸)으로 독일、영국、불국의구라파각지에서 연구려행을마치고 귀로에미국을거처 소화십삼년경에 귀국할터이라한다 (사진은 백린제씨)

轢死傷二件

三日의市內交通慘禍

삼일 오후 아홉시사십오분에 시내원정(元町)일정목 엽배이십구번지압 전차길에서 원정일정목 이십팔번지 길비지우사(吉備之友社)외교원 우대의웅(羽代義雄)(二七)은 전차운전수 리효석(李孝錫)(二二)이가 운전해가든 경성전궤회사제일백사십이호 전차에 바치여 즉사하엿다 피해자 우대의웅은 그전차길을 가로건느려다가 다시 되도라서는바람에 전차는 급정거하엿스나 미치지못하고 전차외편조잡이 거동에 외편어개를 바치여 뒤로너머저서 즉사한것이라한다

◇

삼일 오후 네시에 시내죽첨정(竹添町)일정목 삼십삼번지압길에서 시내명치정(明治町)이정목 이십오번지 김지상점배달인 강호창(姜浩昌)(一七)은 자전거를타고가다가 시내삼판통(三坂通)일백삼번지 량창덕(梁昌德)(三○)이가 운전해가든 「오도바이」에바치여 왼쪽다리에 이주일동안치료를바들 중상을 입엇다 피해자는 자전거를타고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쪽으로 가든중에 가해자는우차(牛車)를 피하려고 왼쪽으로핸들을돌리고 가려다가 서로바치게된것이라한다

◇삼일 오후열한시경에 시내 종로이정목 이십번지압해서 최현섭(崔鉉燮)(二八)이가 운전하고 가는전차에 시내 관철정(貫鐵町)륙십일번지 박재광(朴在光)(三五)이가 자전거를타고가다가 충돌되여 노치상을 이르키고 혼도되엿섯는데 곳 부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바든결과 생명에는 이상이업다고한다

平壤白晝의强盜 銀行門前에突現

九百八十八圓을强奪逃走中 市民이追擊當場逮捕

【平壤支局電話】 사일오전십일시 평양부 차관리(釵貫里)박일찬(朴日燦)(三○)이라는사람이 동부내 수정(壽町)식산은행지점에서 예금 구백팔십팔원구십칠전을 차저가지고 은행문을 나서자 어떤자가 뛰여달려들어 억지로넘어치고 적구현금을 모다빼서가지고 달어나는것을 도적을잡으라고 소리를질러 거리의 사람들이 추격하야 그부근 남문정(南門町)전차정류장 부근에서 체포하엿다 곳경찰에 인도하야 취조한결과 현재평양부내 행정(幸町)안주려관(安州旅館)에 투숙중인 모생명보험회사 외교원림청로(林淸露)(三○)이라고만하야 자세한것은 알수업다 이가튼 백주의강도소동으로 시중은 큰 소동을 이르켯다

一般部엔京蹴 中等部儆新制覇

遞客順天과永生兩軍善戰惜敗 綜合競技蹴球大會終幕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주최의 제십칠회 전조선종합경긔축구선수권대회 최종결승전은 삼일오후한시사십오분부터 경성운동장에서열린바 일반부에는 별항과가티 연장전에드러가 경축군이 순천을간신히이겨 패권을 획득하엿스며 중학부결승에는 경신(儆新)이 영생(永生)을 격파하엿다 이리하야 동대회회장 윤치호(尹致昊)씨로부터 우승팀에게 우승기와 우승배를수여하고 경축주장 정룡수(鄭龍洙)군의선창으로 조선체육회만세삼창을부르히불러 수상식을 마치니 때는오후다섯시반 종합경긔축구전의 막을다치엇다

一般部決勝 京蹴4 順天2

【前2…2、後0…0、延2…0】

【昨日夕刊續】 延長戰에드러가 三分에京城RI鄭龍洙君이LI崔成孫君의패스를바더 食下하야 一點을어더三對二로 京蹴軍 드듸十八分과 二十五分에 順天軍得點의 好機를凡蹴으로마치고 戰勢는 白熱化한가운데 激戰을거듭하드니 『타임업』三十秒를남기고 京蹴LF金日培君 左隅蹴을 利하야 巧妙한킥으로 一點을追加하니 結局四對二로 順天軍來年의捲土重來를 期約하면서물러섯다

中等部決勝 儆新3 永生0

【前1…0、後2…0】

【第四次】 遠來의 咸興永生高普對儆新學校戰은 同日午後四時부터 金命濟(主)玄正柱、李裕[illegible](線)三氏審判아래 儆新軍『킥오프』로開始한바 前半戰에兩軍攻防戰을繼續하야 得點할機會조차 업서보이드니 十八分에儆新LI李昌永君의패스를 CF吳義根이 바더『交』하야 最初의『골』을 지으니 이에永生軍奮起逆襲하엿스나 强陣儆新을攻擊하기에는 원체疲勞한지라 뜻을이루지못하고 一對零으로 前半戰을 마치고後半戰에드러가 二分만에 儆新LI李永昌君이 『루-즈볼』을交하야 第二次의 得點을 지은後 永生軍陣을 어지럽게하드니 同二十五分부터 逆襲으로 因하야儆新軍一時는危機에陷하엿스나 數次의好機를 놋치엇다 四十分에儆新LW宋一燮君의『交』으로 또一點을加하야 結局三對零으로 遠來의永生軍을 一蹴하니 榮譽의優勝旗는 儆新陣頭에서나부기게되엿다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永生】	朴春澤	蔡[illegible]	金忠烈	玄朴孫	金鳳瑞	金德俊	金英根	李[illegible]煥	金昌鶴	金宗顯	金仁煥
【儆新】	秋尚燁	金貞亮	崔延壽	朴利錫	金承桓	張[illegible]榮	段[illegible]	[illegible]	吳義根	李永昌	宋一燮

【儆新】	前	後	計		【永生】	前	後	計
得點	1	2	3		得點	0	0	0
門蹴	2	2	4		門蹴	15	9	24
隅蹴	3	5	8		隅蹴	1	0	1
自由	3	2	5		自由	6	2	8

殖銀嚴、野副組優勝

京城軟式庭球聯盟主催의 明治節奉祝庭球大會는 三日午前十一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한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殖銀의 嚴寶龍、野副組가優勝하엿다한다

◇準決勝

○殖銀(嚴寶龍 野副)4…2遞信(大松 友田)×

○府廳(張南植 赤松)4…3遞信(小川 岡田)×

◇決勝戰

○殖銀(嚴寶龍 野副)4…3府廳(張南植 赤松)×

培材럭비勝

培材高普對京城大學豫科럭비戰은 二日午後四時부터 京城大學運動場에서 培材先蹴으로開始한바 培材優勢하야結局二十九對零으로 快捷하엿다

培材高普29(11…0 18…0)0大城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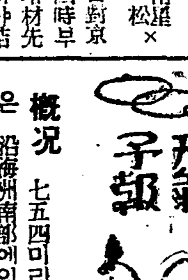
韓慶熙孃의光榮

지난一日東京에서 開催되엇든 全日本卓球選手權大會成績에 依하야 朝鮮代表選手 韓慶熙孃(淑明出身)은 四日秩父宮殿下 御臺覽試合에出場하기로되엿다

選拔都市對抗 門司鐵道軍優勝

【小倉電話同盟】 大每西部總局主催의 第二回選拔都市對抗野球優勝戰 全大宮對門司鐵道試合은三日午後二時六分부터 湯淺(球)久森 安井 蜂田(壘)四氏審判下에 大宮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五A對四로 門鐵軍이優勝하엿다

		計
大宮	100200100	4
門鐵	10100111A	5A



概況 七五四미리의 低氣壓은 沿海洲南部에잇서東岸으로부터 朝鮮海峽에 이르는不連續線으로 東進하고잇다。高氣壓은 日本本州東海上에 七六六미리 北中國에 七六四미리를 보이고잇스며 滿洲와 北朝鮮은 맑고 中部以南은 흐리엇스며 어제밤에는 全鮮에 降雨가잇섯다 日本內地도 흐리고 잇스며 處處에 가는비가 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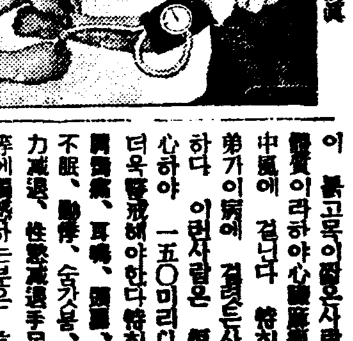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西北風이불며 날흐랏다 明日도 西北風이 불러이며 날흔개이나 좀치워지리라고

昨日最高 一七、四
同 最低 五、一
今朝最低 九、八
今日正午 一四、○

목이짧고──肥大한사람

血壓에戒心

特히祖父母、親兄弟가 中風 腦溢血에걸닌사람은危險



血液測定의寫眞

身體가肥大하고머리가빠지고얼골

이 봄고목이짧은사람은所謂卒中體質이라하야心臟麻痺、腦溢血、中風에 걸닌다 特히祖父母、親兄弟가이病에 걸닌사람은 絶對로危險하다 이런사람은 血壓에戒心하야 一五○미리以上 잇스면 더욱警戒해야한다 特히 胃腸病、耳鳴、頭重、上氣、肩凝、不眠、動悸、숨차기、腰痛、記憶力減退、性慾減退、手足麻痺等에 異常을 感하는 분은 危險狀態로 突然、心臟麻痺、腦溢血로 急死하든지 또는 假令生命을救하여도 半身不隨의中風이된다。이病은酒精、痛風、淋病、腎臟病、糖尿病梅毒等의 毒素로血液이濁하고 循環이나빠서 이러나는 것으로 一時的인 治療에困難하나 血液을 淨化식히면조타 醫學博士가苦心研究한結果어떤貴重한植物ホルモン으로完成시킨リキシン(イマヅ)는 이目的에 가장適當한新藥

血液을淨化

서、目下血液을 大掃除하야 新鮮하게하며、同時에病毒을 除去하야 根本的인 治療가 된다。따라서、腦溢血의症狀도업서지고、또、中風으로、心臟麻痺도豫防되고、또、多年의治療로도 效果가업서苦心하든분도リキシン의服用과適當한養生으로 全身에 모든毒血病毒을除去하면、手足麻痺도낫고 半身不隨도낫는다。

リキシン은藥房에잇슴、大阪市大仁今津化學研究所로 朝鮮日報名記入申込하라、血液淨化療法과說明書를보냄

돈버리에조흔家庭工業

價用잇는最高의社會의氣盛잇는大事業進路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하라

第一의工業은우리日常生活上不可缺의世界的消耗品으로서婦女子製造容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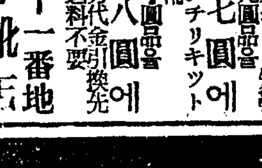
第二의工業은여러분의家庭總出動的製造至極簡便各土地의材料로自由히製造

內外貿易株式會社

勿失好期

山陽ボックス短靴 七圓五十錢品 六圓에
獨逸ボックス短靴 九圓品 七圓에
センチリキット短靴 十圓品 八圓에
地方代金引換先金送料不要

京城府孔德町十一番地 大光洋靴店 電話龍山一五七九番



●創業五週年紀念謝恩 ●二割引提供
●特히一個年無料修理券付

萬年筆 眼鏡 의仕入은當店에
良品廉價 商報進呈
仁川府京町一六七番地 金剛商會 振替京城二四六七○番

朝報案內

貸店 舖付電車通日拔場所、事務所向、出張 京城府橋北町一○番地 本社販賣部

尋犬 白茶色ブチ長一尺餘 逃走 京城鐵道郵便局內

補缺生募集
大田測量講習所
募集期限十一月十五日限
(學則要二錢切手添附請求)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副業으로男女小兒도할수잇는職業 藥品無代進呈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藥本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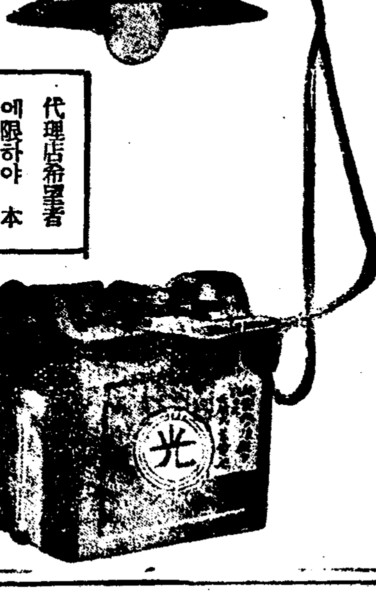
眼鏡은東亞醫院
專門 檢眼
眼科.齒科
京城 鐘路 電光二四三六番

醫師試驗準備書

金剛山溫井里
鐵道局指定館
金剛旅館京城分館
客室淸新 料金低廉
京城紅把町五ノ五 電車靈泉線橋北町停留所下車
主 尹 鍾烈

新發明

農漁村에一大福音蓄電池



農村山間僻地 市外가리光明 石油燈보다 經濟되고 밝고 停燈업고 光力은 五燭부터 五十燭까지 自由로永久히 使用할수잇스니 一次試用하시요

代理店希望者에限하야 本社地方係員出張 代理店特約契約을 締結함 地方係 朴種殷

各道各郡特約 代理店大募集

光明式蓄電池鮮滿配給所
光明電氣商會蓄電池部
平壤府新陽里一○八 電話三三四八番

代理店決定地
平安南北道新義州、鐵山、南市、定州、价川、博川、龍岡、黃海道、海州、長淵、黃州、南川、忠南北道、天安、論山、大田、扶餘、慶南北道總代理店、釜山、高原、京北道、文川、江原道、京城、利川、龍仁、開城

腫症仙藥

趙膏藥

趙膏藥과 腫氣!
腫氣에 趙膏藥은 不可分의깁흔 關係를가지고잇습니다 腫氣의 大小를 不計하고 腫氣어던반다시趙膏藥을자습시요 부처서 속히낫고나은後痕跡이업는것이 趙膏藥의 特長이올시다

效能
○모든창부스럼 ○모든 습종 ○유종 ○담종 ○담결니는데 ○발찌 ○구창 ○낙상 ○어혈 ○젼비 ○요룽기타무명 ○종독증

藥價 一五錢 二十五錢

全國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합니다

京城鍾路四丁目
本鋪 天一藥房

オリヂナルクリーム

バニシング

오리지나루구리―무

치운冬節에맘노코
皮膚를보호하시랴면

オリヂナルクリーム는더욱優良한
品質를알려드리기爲하야今番!!

전선판매점

全鮮販賣店에서

大瓶(定價五十錢)을사주시는분께**小瓶**(定價廿五錢)을
小瓶을사주시는분께**別小瓶**(定價十五錢)을
―**販賣店**에서**即時**―

無代進呈!

特長

살결을보드랍고희게하며
윤이나고안터지게하야서
한層더健康美를 發揮할수잇게하는 效能이잇
스며향긔로운냄새까지……
オリヂナル香水本舖의製品답게마처
香水를살결에바르선것갓쳐氣分이爽
快하여집니다
品質이優良한故로
조곰만바르서도効果的입니다
꼭한번試用하여주십시요

定價
大瓶 五十錢
小瓶 廿五錢
別小瓶 十五錢

原料香水 オリヂナル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석양

家庭

쓰고나면 감쪽가튼 남이모를안경

코에걸치지안코눈동자에 — 눈어둔사람에게대복음

눈에 아모련병도 업고 이상도 업는사람이 구래여 안경을쓴다는것은 조치 못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멀정한눈을 그릇치는수도 잇지만 근시(近視)란시(亂視)가치 눈에 이상이잇는 사람이면 될수잇는대로 속히 눈에맛는도수(度)로 안경을 맛처서 쓰도록하는것이조흡니다 조곰전까지라도안경을 쓰는것은 멋이 드러보이고 사치스러워서 안경 쓰기를 질겨하엿는데 요사히시체로는 안경쓰는것을 실혀합니다 그말을듯고보니 그럿지 안경쓴 사람은 조곰어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요사히는 또한 안경은쓰기는하엿는데 실상거트로보면 썻는지안썻는지 잘알아보기어려운안경이 발명되엿습니다 그것은「콘탁트그래스」또는「하프트그래스」라고도하는데 「피크」라는 독일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사십년전에 발명한것으로서 안경렌스를 적은잔모양(盃型)으로 만드러서 이것을 눈속에너허서 거문재우에 부칩니다 이것은처음유리로만드러진것인까닭에 여러가지결점이 잇서서 아즉까지 실용화되지 못하엿던것입니다 그런든것이 최근미국의「페인빠른」이란사람이 이것을 개량하야 보드럽고 신축이 자유로운 나무 기름으로 안구(眼球)의 전반부(前半部)의 형(型)에 일치한것을 만들고 그중앙에검은자에 일치하는렌스를부처서 이것을 눈속에너코단이도록되여잇습니다

이것이만일 완성되여 보급될조건을 구비한것이라면 오늘날과가티 여러가지직업부문에드러가잇는 젊은남녀들이안경을안쓰면 안될눈의 이상이 잇다하더라도 것보기에 아모러치도 안케 안경은 안경대로쓰고 잇슬수잇슴으로 편리하리라고합니다

개를못짓게 목구녕수술

밤중에 사람들이 모다 곤하게 잠들어 잇슬때는 어떤때가 을해도 이웃사람에게미안한생각이 밤마다 자꾸짓는개가 멍멍짓는다는것은 견딜수업는 노릇입니다 미국「조-지야」주「에흘린」지방의 수의(獸醫)는 최근개의 성대를수술하야 맹렬히 짓는소리를 방지하는 방법을발명해내엇습니다

이수술방법이라는것은 지극히 간단하야 다만개성대일부에 ▼자형으로 째기만하면 개는아모 고통도밧지안코 건강에 아모영향도업시 효과를내일수잇게된것입니다

장차 도회지의 인구가 늘어서 개짓는소리가 사람의신경을 몹시 거칠게하면 이것은확실히 일반적으로 실용화될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섭섭한것은 개가 우렁차게 짓는것이 조용해게 가지지못하게되다면 이것은적지안케애석한일일것입니다

우리차리지

"쌀랑바람"

쌀랑바람 분다。

나뭇닙 날린다。

햇볏찻는 하라버지

호물호물 그입살로、

「물아레 갈가마귀

다-얼어 죽엇겟다」

(늘봄사 임원호)

최저액을정치못한 미국안악네품삯

계약의자유를무시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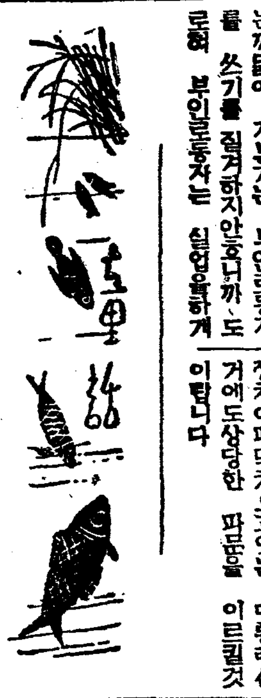
「부인로동자에게 대하야서 로동시간의제한과 최저임금법의설정하는것은 명목상으로 부인로동자를 보호한다고하나 실제문제로서는 이러한법률의제한이 잇는까닭에 자본가는 부인로동자를 쓰기를 질거하지안흐니까 도로혀 부인로동자는 실업을하게 되므로 이것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구라파나 미국의 부인단체에서 일어나게되엿스며 그리하야 이법률의반대운동이 맹렬하게되엿는데 「뉴-욕」주부인의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데 대하야 미국부인당(米國婦人黨)을 비롯하야 삼십여부인단체가 이것을 헌법위반(憲法違反)으로 미국대심원(米國大審院)에 소송을 이르켯습니다

대심원에서는 이것을 수리한뒤신중한 심리를 진행하고잇던중 지난[illegible]일에 사대오로 이것이 헌법위반으로 판결이내리엇습니다 이와가튼 판결은지금으로부터 십삼년전에도 한번내린일이 잇섯스나 금번것은 지난번것보담 더욱더 남녀의평등을 확창시켯답니다、

한번위반의 리유는 즉「미국부인은 남자와 동등의헌법으로 보장되여잇는데 계약(契約)의자유를 속박하는법률이잇슬수업다 고해서 부인최저임금은 그만무효로되여버리엿습니다 이문제는 단순히 부인만의문제가 아니고 주정부와련방정부와의 문제로서 장차아페닥처오고잇는 대통령선거에도상당한 파문을 이르킬것이랍니다

왕자와거지 ⑦

마-크·토웬 作 / 崔秉和 譯



이러케 말하면서 왕자님은 눈치빠르게

「네손바닥에 피가맺혓구나!」

「네、조곰、빠거젓습니다。」

「참그놈들은 고약한놈들이다 아버지가도라오시면 [illegible] 밧치야하겟다。 나도 벌을주어야하겟다。」 이러케말씀하시고 왕자님은 눈을부르뜨드고맨발을 동동구르시드니 무엇을생각하시엿는지 급히

「잠간만 기다려라 내가도라올때까지 여기를떠나지말고 잇서야한다。 명령하야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책상위에잇는 커다란도장을집어서 벽에걸려잇는갑옷소매속에다가 집어너코는 급히 뛰여나가시엿습니다。 얼마안되서 왕자님은 대궐문간에 나타낫습니다。 그리고 빗장에다손을대면서

「문을여러라。 빗장을 때라」

하고 큰소리로 분부하시엿습니다。 그러니깐 악가 룰 올몽을내준 파수병이 또문을여러줍니다。 왕자님은 문안에서 파수병을 꾸중을할따고하엿는데 도리혀

「이놈 너때문에 황태자전하께 호령을드럿다。 망할자식 이거나먹어라。」하는 파수병정의목소리가 들리는듯햇는데 왕자님은 웬편귀를 철석하고 큰손바닥으로 몹시어터마지시엿습니다。

「어구!」하는 소리와함께 왕자의 몸둥이는 빙글빙글 돌드니 철석하고 땅바닥에가 나가잡바젓습니다。 왕자님은 겨우 이러나서 파수병정을 흘겨보면서

「나는 황태자다。 내몸은거룩하다。 거룩한몸에다가 손을대죄로 너는목을잘느겟다」

하고 날카롭게 호령을하시엿습니다。 그러나 누가이아이를 정말 에드와-드왕자님으로 아는사람이잇겟습니까? 파수병정은 이제는놀림감으로 생각하고

「나는 황태자전하에게 경례를합니다다」

하고 시침이를뚝떼고 기착을하면서빗드러충을하엿습니다。 그러드니 별안간 것치런소리로 변하면서

「요놈아 얼른가거라 밋친놈가튼니」

하고 소리를질너습니다。

그러니깐 그때까지 여페서 서보고잇든 악가 그구경군들이 별안간 우르루·왕자에게로모여드러서 왕자를가온데다가 둘러싸고

「황태자전하께서 지나가신다。 황태자전하께서 지나가신다。」하고제각금 떠들면서 왕자를끌고 큰길족으로갓습니다。

連載野談 布袋記 (一五)

(不許轉載上演)

申鼎言 作 / 金熊超 畵

마저죽기소원(十一)

리선전관이 그창두에게 청돈일백오십냥、군복갑 이십냥 도합일백칠십냥을 주어보낸뒤에한편으로는 조혼마음、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생각이 맛장구를 첫다。

특히 조혼마음은 장래의 경사를 그리는것이오 걱정되는생각은 당장에 당할일임으로 실상은 조혼마음보담 걱정되는생각이 더욱컷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땅을 파라가지고 온 돈삼백냥중 이백오십냥은 청돈으로 이십냥은군복갑으로 열냥은 그창두의 행하(行下)로 도합 이백팔십냥이 벌서 업서젓고 남어지가 겨우 이십냥뿐인바 그동안 세사람의 밥갑을 따진다면 그 이십냥이 잘해야 몃냥이 남게될것이다。

그럼으로 그창두의 주선으로써 청을 너흔일이 잘된다면 아무걱정이 업지만은 된다할지라도 날자가 늘어지거나 만일 영영 삐구러진다면 거지가 생기여도 단하나가 아니오 우선이철이와 덕용이를 합처 세거지。 봉산의 집안식구를 몰아 너흐면 괴연 떼거지가 쏘다지게되엇다。

이에 리선전관이 이런생각、저런생각을 실꾸리에서 실을풀어 내듯이 이모저모로 생각하니 외몸에 물긔가 모다 말려부튼듯이 조여들고 잠은 천리만리 달어낫다。

『허허。 내 일이야 말로 칼을 물고 뛰염을 뛰는격。 그러나 귀위 벌려노흔 춤자리와 똑가튼 사정이니 이제는 입날일이나 볼수박게 업는일。 그런데 이철이란 놈이 맥랑한 놈이야。 제가 보고 생각하는점과 내가 보고 생각하는점이 원악 딴판이지만 맥랑하기는 맥랑해。 도대체 사람을 밋는것이 죄되지 아니하는것은 물론。 그것이 재앙을 끄을리도업고。 복을 덜리도 업지。』

하면서 여전히 사람을 부리는 경우에는 설혹 해를 당하는경우라도 의심을 두지아니하여야 장래에라도 그만한 복이 올것이라는것을 미덧다。

리선전관이 이러틋 여러가지 생각이 엇지락 뒤치락하는 동안에 밤이 어느듯 활작 밝엇다。

이때 이철이가 들어와 방안을 청히 친후 매우 걱정되는 긔색으로써

『나으리마님!。 일이 암만해도 수상합니다。 그 창두의 말이 그럴듯은 하오나 제헴이 그러케 투철할리가 만무합니다 어제밤에 소인이 그 창두의 뒤를 딸어가 그놈의 행동을 엿보앗습니다。 그랫삽드니 그놈이 들어가는집이 분명 그놈의 상전댁은 아니요 아마도 여러놈이 모와서 노름을하는 집인것갓사와요。 이랜든 저랜든 그 피가나는돈만 속아서 빼기는 모양이오니 이일을 장차어찌하오면 조흘는지 생각할사록 긔가막힙니다。』

하며 탄식하는 이철의 두눈에는 눈물이 어리엿다

리선전관이 이철의말과 이철의 동정을짐히 듯고보라보다가

『이철아!。 그창두가속인다한들 그러케 대담스럽게 속일수야 잇겟니 좌우간 오늘하회를보아서 만일 일이 그르게되지나 늣게될 형편이면 너흘을은 내려가거라 객비만 작구 나니!。』

하면서 매우 언짠은 긔색을띄엇다。

이때 그 창두가 아이에게조그마한 부담 상자를 들이고서 들어오며、

『나으리마님! 밤새문안들이오。 저 군복을 밤을 새워서 짓케하느라고 솜씨가 어떠케되엿삽는지!』

하면서 그 아이가 들고섯든 부담상자를 바터서 방안으로 들녀노핫다。

『아아。 발서 맨들엇서。 무던이 속히 되엇구나。』

하며 리선전관은 매우 조와하는 긔색으로써 그 창두를 한번처다보고 부담상자를 내려다 보앗다。

그 창두는 부담상자를 리선전관 압헤 닥거노코 뚜껑을 여러 노앗다。

一席話 (바보들·배우는사람) 李殷相

朝鮮舊習의美點과缺點 黃義敦

娛樂과人生 金晋燮

秋校長……畵報 麗人巡訪 末來의女人畵聖과 그作品 가을도 마저간다 ★

女人들게는못할말과할말

筆蹟으로性格과運命을判斷한다

울며떠나간 그女人의 이야기!

빠스켓을들고떠나간女人 李相昊

나도 안보고 간 금이 愼弦重

高句麗의옛傳說 鹿足夫人 車相瓚

正音小史 (한글은 언제어떠케되엿나) 湖岩

女性界消息 / 藝園漫步 / 失戀하는까닭? / 웃지맙시다 / 처음듯는이야기 —◇— 常識辭典? / 內外珍聞 / 젊어지는飮食 / 燻料理製法 / 美話

漫畫 아이·가치·쇠돌이야기 임홍은……

우리살림을改善하자 尹聖相

美容·結髮·매니큐어 吳淑根

五男六女兒 세-타-짜는법 金順喜

·가을과流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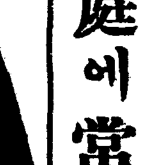
家庭讀本

우리家庭에必要한레코-드音樂 洪人集

롤스토이翁과그夫人과의不和에對하야 咸大勳

그분들의週末플랜 垂延生

우리家庭에常備할藥은? 張文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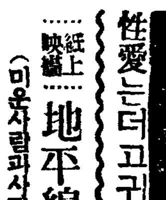


女人劇 낸의悲劇을보고서 朴基采

各界學者가본美人의定義

열도넘은이들분이美人을妖物처럼、또는仙女처럼보앗습니다

女學校時節의 로맨쓰



母性愛 金興濟 사랑하는마음은 아름다운것입니다 그중에도母性愛는더고귀한것입니다

□그날의생명……張德祚

□佐保河畔에서……許河伯

□追憶이새로워……金微圓

□이마음모르는가……崔東珠

漫文漫畫 남의흉내만 내려고드는거리의流行女를諷刺햇습니다 晩秋街頭風景……崔永秀

隨筆 어느날午正……鷺山

隨想 어린아이와내論文……金基錫

우리學校자랑 (淑明篇)

女性 十一月號發賣中

倍大增頁斷行 百餘頁의美本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振替五八七八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우리집食卓의한가지자랑……李應淑

렌의哀歌(第五信)……毛允淑 렌은곱고 아름다운 마음을가젓습니다。 그는 부인잇고 자식잇는 사람! 시몬을 사랑하면서 괴로워합니다

紙上映畫 地平線을넘어서 (미운사람과사랑하는사람의이야기)

가을과小兒攝生法……趙東秀

性·生理學……鄭槿陽 女學校에다니는 학생이나 學校를卒業하고 집에들어안즌신부이나 處女이면 누구나 똑가티 읽어야할 글입니다

☆短篇小說☆ 안해 安夕影 / 不傳딱지 蔡萬植 / 鄕愁 朴泰遠 / 바다의小夜曲 鄭飛石 / 콩트 가을밤 安懷南

詩 金起林 / 東方紀行詩 / 汽車外一篇 李貞求 / 풀닙맛서요 林春吉

美人과健康美 洪鍾仁

家庭太平記 李榮敏宅 李榮敏氏와李貞賢氏는過去와現在와未來를조용히잘말하십니다。

十三道 女性巡禮記 (全道篇) 蔡萬植 [illegible]

家庭生活과迷信의弊害 孫貞順 [illegible]

關北一千里 (一)

眞興王北巡碑閣禮記…(一)

李殷相

十月二十七日밤이다. 利原眞興王北巡碑閣落成式에 參列하려고 나는 咸鏡線으로 向한다.

車가 京城을 떠난지 겨우한 時間, 그러나 時計는 벌서 子正이 넘는다.

寂寞히 일어나는 괴로운 생각이 달리는 車窓과 거 달이밝으매 더한층 어지러워 잠들이루기 어렵다.

金谷, 議政府를 어느새에 따 지나고, 鐵原 가을들이 달빛속에 寂寞한곳 여기가 弓裔古都다. 길손의 本性이 ?然히 多情하야, 다잡는 한밤에 홀로 高岩山 白岳一帶를 눈물로써며 떠돌는것은 스스로도 모를일이다.

이마에 손을얹고
여서울 내다보니
鐵原 가을들은
달아래 희미한데
英雄의 千古遺恨을
眼底히도 뵈는고나.

오늘밤 秋風속에
그때시 다시나려
三軍 兵馬를
몰아쳐 달리는가
바람에 불리는물이
?然하입 아니리라.

어리석은 생각이다. 不幸한 英雄[illegible]하더라면 [illegible]한이가 한?이랴. 큰뜻을 가진 者에게 不運이 한껏하은 예나이제나 마찬가지다.

車窓밖으로 月井이란 驛名을보고 「그이름조차[illegible]」하면서 지나간뒤에 아마 잠을 잘들엇던가보다. 깨어보니 [illegible] 窓으로 들어오는 山峽의 새벽바람이 차웁다.

문득보니 月井까지 나와가티 마주앉앗던이는 업서지고 平康, 福溪, 劍拂浪을 지나는 동안 어이한 다른사람이 그자리에 올랏다. 어디서 [illegible]는지는 모르나 언제벌서 옷을벗고누워 잠이들엇다.

時間은 흐르고 머물지 아니한다. 人事는 바뀌고 그치지 아니한다. 乘客의 오르고 내리는것이 至極히 平凡한일이언만 오늘밤은 구르나 [illegible] 이가티 無常하게도보이는지.

거기요 여기래야
劍拂浪 재하난데
山川은 다름없나니
사람도 바뀌엇네
그려지 안그렷겟나
헤어보다 八十里를.

[illegible] 生도 다만 그것은 내가하는일, 말은 어느덧 中굿을 넘어서고 밤은 밝어시 기띄간다.

어디서부터 잠이들엇는지 高原의 사이에 하롯밤이 다 지나고 눈을뜨니 寶鑑山下文川驛인데 환한 아침비치 東海로부터 떠져오른다.

北으로 저것은 天佛山, 西으로어느것이 霞月山인공. 雲林古城은 아직 어득한속에 보이지안코, 옛날 雪峯院이라야 아는인들 잇슬라구.

다만 생각나는것은 [illegible]의文川過次詩一句

生平意氣漸消伏
走遍天南又北行

내뜻이 또한 이러하야 南從北馳로 다니는길이 오늘은 [illegible] 高原의 熊望山을 지나는것이다. [illegible]부터 [illegible] 조양들하나 마른[illegible] 숨기지아니하고 낫낫치 제대로를 어내어 어둠속으로부터 [illegible] 해주기를 시작한다.

[illegible]하고 壯麗한 새世界를 열어놋는 여기가 永興이다. 雲瞻山城은 문허진채로 아침햇비체 명이명이 움직이는것갓고 鎭山인네 國祭山인데 長平[illegible]이오 [illegible]茂山이오 하면서 모조리 이름마추어 [illegible] 흡한山들이 眼界안으로 다투어달겨든다.

山川이 이만하길래 李太祖의 龍興地로다 하면서 [illegible]浦, 文峰을 瞬息間에 물리치고, 巴只城은 [illegible]도안뵈는 定平地界로 들어서니 四方의 山들은 구름아래 [illegible] 엄드고, 들판이 그代身 [illegible]하야 내로라하고 한번 거칠어서 열려보려한다.

밤사이 내린서리, 아직해비체 마르고 들판에는 찬바람 불어 입사귀마다 고개를 흔든다. 흰빛, 누른빛 野菊의떨기떨기 길손의눈을 군데군데 서로껏고, 발길마저 멍기건마는 이미 式典의 日字가 한時刻의 猶豫도 許諾하지아니하매 아까운채로 잠자코 지나가는수밧게업다.

저鄭圃隱의詩에

定州重九登高處
依舊黃花照眼明

이란것이 잇슴을보면 定平野原에 黃花의景이 오랜옛날부터 잇던가보다. 그러나 저 野菊들을 밟고지나갈 兵馬업슴이 [illegible]하지 아니한가.

흰菊花 누른菊花
들속에 들菊花야
밤사이 찬서리에
다시물든 들菊花야
너밟을 鐵騎업스매
바람결에 마르느냥.

學藝

리아리즘의擴大와深化

『川邊風景』과『날개』에關하야

(三) 崔載瑞

作者의캐메라는 위선 淸溪川빨래터로 向하여진다. 이것은 어멈과 행낭사리類의女人들이 그들의旺盛한多辯慾을 充腹식히고 또 附近一帶의 生活內幕에關한 情報를 交換하는 一種의 社交場이다. 거기서야 아니 요새 웬 비웃이 그리 빗싸우? 하는적은 生活의 嘆聲도 들리고 社會潮流에밀리여沒落하여가는 신전主人에對한 責任업는批評도들린다. 가장 서民의色彩가濃厚한이川邊에 女人群이비저내는 生活의悲哀와유ー모아의 리즘은 그들의 아름다운 京辯와함께 흘르고 잇다 作者는 어데에가 端正히안저 그들의動作과會話를 周密히 觀察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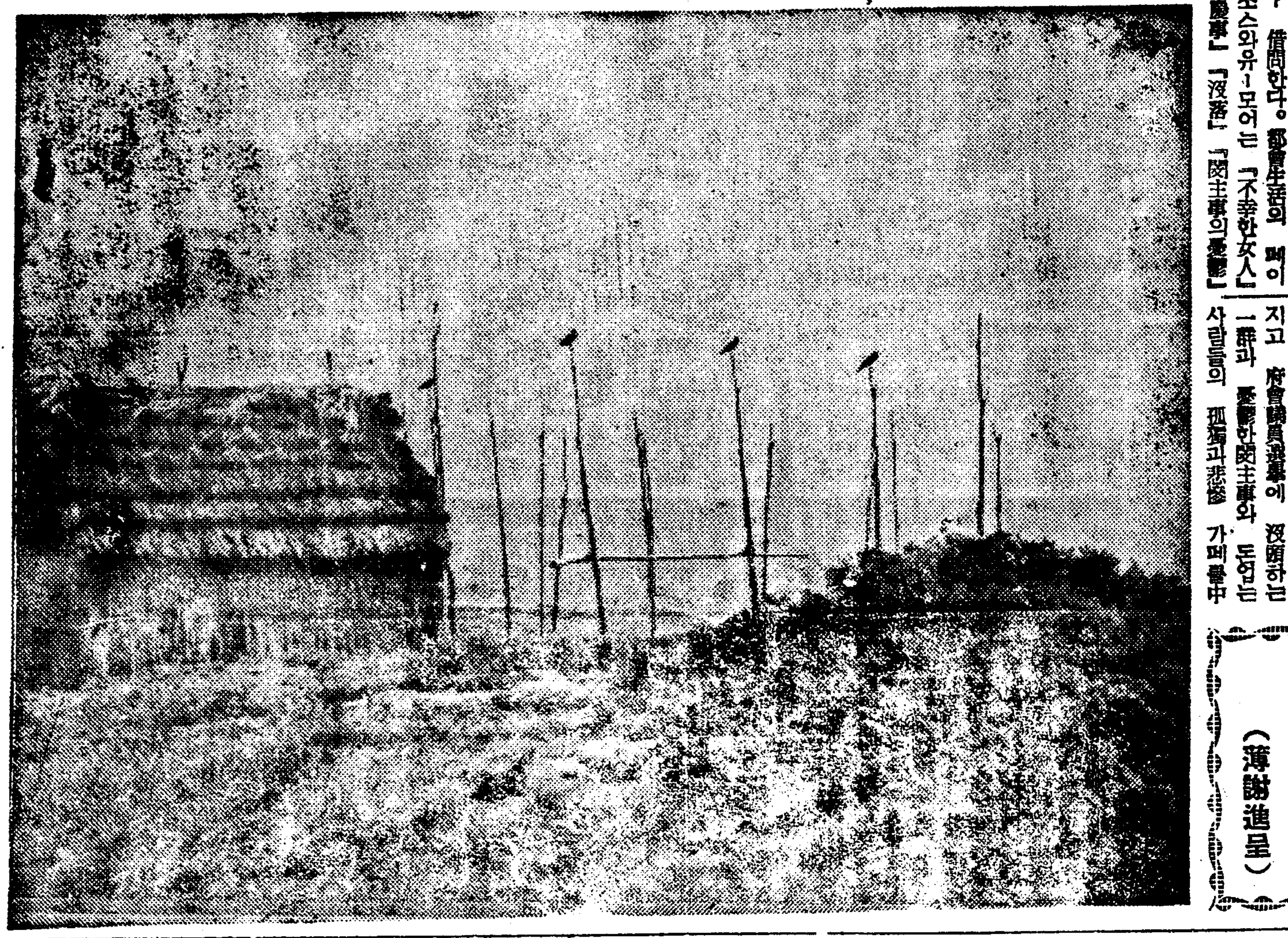
다음 場面은 「理髮所」로移動된다. 빨래터가 女人들의 뉴ー스交換所인것과맛찬가지로 이곳은 男子들의 生活感情의濱露所이다. 이곳에선 거울에비친老衰한 얼굴을보고 젊은 妾을聯想하야 閔主事가 憂鬱에빠진다 作者의 사ー치라이트는 表面의行動을뚤코드리가서 이老紳士의 정령한內部世界를 비최여준다. 여기서 作者의 캐메라는活動을 休止하고 그代身 理髮所少年의 캐메라가 活動을始作한다. 이少年이 이말로 이作品中의最大傑作이다. 이少年은 이作品의人物인同時에 도觀察者이다. 그는 旺盛한好奇心과 아모偏見도업는 맑은눈을가지고 理髮所窓밧게流動하는生活을 모조리觀察하고 또 유ー모아를 가지고 少年다운 純眞한마음과 賣여운 批評을나린다. 作者自身을 聯想식히는 凉味豊富한少年이다. 따라서 이少年의캐메라는 作者自身의캐메라와 區別할必要가업다 作者는 이後에도가끔 이少年의 눈을빌러 實在의斷面을描寫하기에努力하얏다.

「川邊風景」이 第一回에잇서比較的表面生活을 描寫한데比하야 第二回에와선 人間生活기피드러가 그感情의波動을 追求하기에 努力하얏다. 「시골서온少年」은 都會生活이가지고잇는 孤獨과憂鬱과絕望을 외로운少年의 生活을通하야 잘表現하얏다. 理髮少年이 知的이고 積極的인데比하야 이少年은 感性的이고 消極的인一面을代表하얏다. 이것도亦是 作者의 一面을 具象化한것이가? 借問하다. 都會生活의 一幅이 [illegible] 소스와유ー모어는 「不幸한女人」「慶事」「沒落」「閔主事의憂鬱」等의테ー마를 조차 會葉가리를 면간다. 作者의캐메라는 前回와 마찬가지로 少年의內部 행랑房 閔主事의 妾家等으로 迅速하게 移動한다. 그中에도 「慶事」의一折은大端히印象的이다. 여기서우리는 띡겐스를聯想한다. 第三回에가서도 前回와가튼 手法을가지고 府會議員選擧에 沒頭하는 一群과 憂鬱한閔主事와 도언는 사람들의 孤獨과悲慘 가떠돌中心으로한變態的取材의 表態等을描寫하얏다.

이모든場面을通하야 作者는終始一하게 캐메라的存在를 堅持하엿다. 서로부드치지안을程度로 現實에接近하야가며 그動態를 될수잇는데까지 多角的으로描出하라고 애썻다.

그러나 나는여기서 한가지疑問을가진다. 即 이作品의世界가 될 川邊은 그自身一個의 獨立한―或은密封된世界가아니냐? 하는疑問이다 勿論 川邊과外部와의連關은잇다 實例를들다면 신전主人의沒落이라든가 其他二三處에잇서 外部社會와의交涉을暗示하는點도잇다 그러나 그것은暗示乃至點描에不過한것이고 作者가처음부터 그런關心을가진것은 아닐것이다.

이것은 勿論카메라의機能으로선 到底히 企圖치못할일이다. 그背後에살아잇는 作者自身의意識의 問題이다. 作者가[illegible](一例를 든다면)亞웃스와ー치와가튼 意識이 [illegible]과見解를가젓다면 그는 全體的構成에잇서 이좀더 넓은世界를 드르고 또 끌고나가는 커다란社會의힘을 우리에게 늣기게하야주엇슬것이다. 『作者後記』에 依하면 이作品은 그가計劃하고잇는 長篇의 一部이라한다. 『川邊風景』에잇서 이社會的連關意識이좀더 緊密하야지기를 나는바란다.



寒日

漢詩募集

題…重陽
押…香
限十一月十日
(薄謝進呈)

一秋窓斷想一 文學語一題 (上)

③ 白鐵

A와 나는 허무러저가는 그성곽의 荒路를 걷고잇섯는데 지금까지의 우리들사이에는 文學과 思想에 對한 對話, 그보다도 그것에 對한A의 이야기를 나는듯고 잇섯다. 無責任한말이나

「事實」은 그의이야기를 나는 愼重하고잇질안헛다. 나는 往往히 다른사람의 이야기를 듣으면서 自己는 혼자서 相對者의 말과는 아무關係도 업는空想에 떠러진수가만타 그것은나의 處世道에잇서 極히無責任한 習慣이엿슬 잘알고 잇는때문에 그런空想이 中斷될때에는 그만치 相對者의 이야기를 注意해드르려고 努力한다. 落葉이 떠러저 섯밟에 싸인다.

『思想을 갖지 안흔 文學은 아무가치도 업는줄 아네!』그는 길바닥에 어즈러히 널려잇는落葉을 무려대고 발길로 차내던젓다. 마치그落葉이 思想을 갓지못한 文學이나 되는것가티!

『한데』그는 말을 계속햇다『요지음의그소위 文壇의 主要傾向이라는것이 文學에서 思想을 「排除」해버리라는것이데는 眞心으로 恨歎하지안흘수업다는 말일세』

「옹!」나는 이야기를하는 편보다는 그의 이야기를듯고 잇는데 滿足하려고 하얏다. 그의 意見을 吐說케하는것은 그만치나의 [illegible]을 보는것이아닐까? 「글세」「아니 무엇보다도자네를 두고 볼때에 新聞의 자네의 모든 論文의 傾向은 實히 思想을 徹底히 하고 잇는것이 分明하거든……어제까지 그 思想을 貴重히 여기든 자네가 오늘에와서 그것을 排斥한다는것은 무엇보다도 자네를위하야 슬퍼하고잇네」

「감사하네 도한 자네에까지그런근심을 끼처서 實로 송구스럽네ー하나 나는 그가 가장寬大한態度로서 나를 對하고 容納하는척하는 態度가 말할수업시 不快하얏다 勿論 요지음에 文壇의傾向中에는 그의말과가터 「思想」을排斥하려는것이流行되는것이 事實이로되 A의말은 主로 내個人을 非難하는데 그意圖가잇는것이 分明한때문에 나는 一種의 興奮에 이끌리어서 언제나 沈默하려는 自己의 有益한 習慣까지를 이저버리고 말을계속햇다.

「한데 君의말대신에 나는 이런境遇를 생각하고 잇네 一般思想이 個人이作家를 一般的인 면으로 引導하는 境遇와 그와는 反對로 一般思想에 對하야 作家가 對抗하는境遇 말하면 個人이 도리혀 一般을 引導하는 境遇의 두가지가잇다고 생각하네 그런케생각할때에 내가 主張하는 文學的傾向은 確實히 그後者의 境遇일세」

「좀더 明確한 論理를 要求하네」A는 비웃는 語調로 [illegible]하얏다 『적어도 現代의 文學理論은 科學的證明이 必要하거든』

나는 언제로 微笑를 강이하면서 말하엿다『勿論 科學의 證明이 아니엇다 말하면 君이나 더러 思想을 排除하며 잇다고 「指摘」하고잇는것인데 나로보면 그것은 決코 思想그自體를 排斥하는것이아니고 다만 思想一般을 概念을 排斥하는것이라는말일세 思想이라는 骸骨을 들어내 노치안코 그骸骨을 될수잇는데로肉眼에보이지안토록 숨기는곳에 今日文學의 길이 와되고보네하나 그것이웨 今日 文學이思想을排斥하는것이 되까?」

「偉大한 演說이다!」는 不快한 感情을 조곰도 숨기려고 하지 안코 侮蔑하는語調를 此하얏다 『思想을 될수잇는대로 숨기다하나 그것이 決코 思想을 排斥하는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시픈것은 이런 點일세』

우리들이 作品을 쓸때에 구래여 思想的秩序와 主義의프로그람을세울 필요가 업다는것 아니 세워서는 不可하다는것일세 그런아니라 讀者의 눈에 띄우리만치 明瞭한思想과 「主義」가 公然히 그作品에잇는 境遇에는 그作品은 文學的으로 完全히 失敗한作品일세! 좀더具體的으로말하면—

나는 A의表情이 차차 나의 論에 同情하는 顏色으로 기우려지는것을보고 목소리를 한층도두어 [illegible] 一氣로 以下의 文句를 어떤文學의 敎示를 읽은記憶을 參酌하면서내리성명하얏다―한 作品에잇서 思想이思想 그것으로 登場하는 境遇으로 思想과 主義가 公然히 나타나는 境遇가 잇더라도 그때에는 그思想이 孤立된것이아니고 그人物의 肉體와 行爲의 一部分으로서의 表現이니까서 表現되는 때에만 文學的內容이될수잇다는말이네! 勿論人物의 對話와 言辭를通하야 直接으로 [illegible]

漢詩

題 白頭山
押 峰
桐岡 考選

白頭山 佳作之二

咸南文川邑內 朴駿敬

白立北維元氣鍾
諸山羅列似兒容
南開東國三千里
上出中天第一峯
陰崖石沒無窮雪
古澤雲藏變化龍
若爭甲乙其誰與
惟有崑崙云祖宗

「조선어표준말모음」(3)

첫재, 가튼말(同義語)

(三) 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ㅅ을 취함】
고수머리(名)卷髮
고두머리
곳(名)處
곧
뜻(名)志
뜯
벗(名)友
벋
빗(名)梳
빋

●ㄷ과 ㅈ의 通用
【ㄷ을 취함】
맏(名)昆
맞

●ㄷ과 ㅌ의 通用
【ㄷ을 취함】
동녕이(名)[illegible]
동녕애
전동(名)箭筒
전둥
웅덩이(名)窪地
웅덩이

●ㄷ과 ㅎ의 通用
【ㄷ을 취함】
단판씨름(名)單回決勝
한판씨름

●ㄸ과 ㅌ의 通用
【ㄸ을 취함】
깨뜨리다(動)破
깨트리다
깨치다
내려뜨리다(動)落下
내려트리다
넘어뜨리다(動)倒
넘어트리다
넘어치다
늘어뜨리다(動)垂下
늘어트리다
떨어뜨리다(動)落下
떨어트리다
뚝배기(名)土器
뚝배기
뚝수리
뚝바리
먼지떨이(名)撲塵子
먼지털이
떨재
털이개
무너뜨리다(動)崩
무너트리다
무너치다
재떨이(名)拂灰器
재털이
치뜨리다(動)投上
치트리다
터뜨리다(動)綻
터트리다
【ㅌ을 취함】
투레질(名)合唇吹氣
뚜레질
티끌(名)塵(集)
띠끌

●ㄹ과 ㅁ의 通用
가뭄(名)旱
가물
●ㄹ과 ㅂ의 通用
【ㅂ을 취함】
누치(名)[illegible]
눕치
눌지
●ㄹ과 ㅅ의 通用
【ㄹ을 취함】
늘어
갈모(名)笠帽
갓모
씨알머리(名)씨의卑稱
씨앗머리
●ㄹ과 ㅇ의 通用
【ㄹ을 취함】
중대가리(名)削髮頭
중대강이
중대버지
까까중이
아가리(名)瓶等의口
아강이
아갈지
●ㄹ과 ㅈ의 通用

【ㄹ을 취함】
두루마리(名)周紙
두루마지
찜부럭(名)不快言動
찜부적
찌어
찌적
찜부럭내다(動)不快言動
찜부적내다
찌어내다
찌적내다
부적내다
찜부럭부리다(動)不快言動 動
찜부적부리다
찌어부리다
찌적부리다
【ㅅ을 취함】
주접들다(動)[illegible]
주접 다들
●ㅁ과 ㅇ의 通用
【ㅁ을 취함】
감기(名)感氣
장기
곰기다(動)成膿
공기다
삼가다(動)愼
상가다
삼키다(動)嚥下
상키다
생키다
삼치다
섬기다(動)事
성기다
셍기다
수세미외(名)絲瓜
수세이외
잠그다(動)鎖
장그다
잠기다(動)滑、沈
장기다
쟁기다
【ㅇ을 취함】
응달(名)陰地
음달
●ㅁ과 ㅈ의 通用
【ㅁ을 취함】
꼼작하다(形)[illegible]
꼼지락하다
곰작하다
고롬하다
●ㅁ과 ㅋ의 通用
【ㅋ을 취함】

오도카니(副)兀(小語)
오도머니
우두커니(副)兀(大語)
우두머니
●ㅂ과 ㅃ의 通用
【ㅃ을 취함】
[illegible](名)[illegible]
비칫
지벅거리다(動)跛行
지벅거리다
지벅지벅(副)跛步行態
지벅지벅
●ㅂ과 ㅆ의 通用
【ㅆ을 취함】
갓(名)邊
갓
●ㅂ과 ㅅ의 通用
【ㅂ을 취함】
줍다(動)拾
줏다
●ㅂ과 ㅍ의 通用
【ㅂ을 취함】
개비(名)個木
개피
고부리다(動)曲(小語)
고푸리다
고브리다
구부리다(動)曲(大語)
구푸리다
구프리다
낯바닥이(名)낯의卑稱
낯바다기
녹비(名)鹿皮
녹피
명불(名)[illegible]
명풀
부기(名)浮氣
푸기
전반(名)[illegible]
전판
조밥(名)粟飯
조팝
【ㅍ을 취함】
이팝(名)米飯
이밥
●ㅃ과 ㅆ의 通用
【ㅃ을 취함】
함빡(副)全的
함씩
흠뻑(副)洽足
흠씩
흠씬
흠쎽

實存哲學序說

—하이데가를中心으로—

③ 朴如涯

如斯히 無의否定하는일에는目的로부터의 疑與와한他者에의指示所謂存在者에로의 指示라는두事實이 存立한다. 換言하면 無에잇서서 存在者自體의根源的顯示性 即 存在者는잇다ー그리고無는아니다라는것이 밝혀지는것이다.

確實히 無는한事件이요 決코 存在者의 否認에잇서서와가튼 僧性的行動으로부터 獲得되여지는 理念이라든가 概念가든것을 意味하지아니한다. 그리고 또한無는 全體的存在者의 否認도아니니다. 이無의事件自體는 全體的에잇서서의 滑落的存在者에로의 指示인것이다. 이 事件이야말로 不安속에서 生起하는것이며 따라서 그指示와 滑落은 한 根源的의體驗에잇서서 成立하는것이다. 即 指示는 滑落시키며잇는일이다.

그런데 如斯한 複成的活動을 完成하는者는 누구일가. 그것은 無自體이다. 그러다면 無는 自己스사로 否定한다는것이되고 만다. 如斯히 不安은 無의體驗뿐 아니라 또한 그것은 無自體의事件도되는것이다. 無의否定하는일에는 存在者의存在가生起하는故로 만일우리가 無에잇서서 存在를 探求하려할때에는 우리는 不安에는 無의否定하는일로서 存在者의存在가 生起한다는 結果에 到達할것이다. 이와가티 存在또는無는 不安에잇서서 生起하는 한事件이다.

하이데가는 이와가튼 不安現象에對하야 心理學的記述을 圖謀하려는것이 아니요 그는 도리혀 不安事件의意味를 解釋또는 說明하려고 努力한다는것을 忘却해서는 안된다. 그런고로 存在者의 存在는 經驗的意味에잇서서의 不安事件도 아니요 또한 그것의 經驗的契機도아니요 도리혀 存在者의 存在는 不安이라事件의 本質을 意味한다. 이와가티 存在者의 存在는 經驗的인것의 本質이라면 이것은先驗的인가. 하이데가에잇서서는 우와가튼 事實은 超越이라現象을 意味하는것이될것이다.

칸트가 모든 綜合判斷에잇서서 經驗의 可能性과 經驗의 對象의 可能性의 두 條件을 統一하엿슴은 우리의 周知하는바이다. 卽『經驗一般의 可能性의 條件은 同時에 經驗의 對象의 可能性의 條件인것이다』(純粹理性批判 B 一九七)하이데가도 이것에 相關하야 『此等 두 條件은 다가티 超越의 本質을 完全히 限定하는것이 아니면 안된다』(칸트와形而上學問題 一二頁)라고 말하얏다. 超越은 存在者의 存在를 形成하는것이며 同時에 그것은 存在者의 存在인것이다. 그런故로 存在論은 超越哲學이 아니면 안된다.

存在者의存在는 決코 어떠한對象도아니요 또한 그것은 한主觀的인것도아니며 經驗的主觀的인것이다. 그것은 도리혀 經驗的認識의 先天的(아포리오리的)條件의 總稱槪念일것이다. 이條件이야말로 칸트의純粹悟性의槪念의 一部에잇서서는 超越을意味할것이다.

如斯히 存在는 超越的인것이다. 그런데 이 超越의 根源的生起(Urgeschehen)는 오직 人間에잇서서 生起하는것이요 이저서의 超越의 根源的生起는人間에 잇서서의 現存在를 意味하게된다. 하이데가는 이와가티 現存在의 存在를 人間에잇서서의 現存在의 事件으로서 理解한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存在一般의 超越的性格을 吟味하여왓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나아가 存在一般의 根本性格인「現存在에 適合하는性格」의 如何함을 考察하여보자.

데카르트는 『我思故我存』의命題에서 思惟의存在樣式, 嚴密한 存在의 意義를 規定하지아니햇다. 大抵 人間의存在에對한 무름(問)은 存在에 對하야 卽 人間現存在에 對하야 뭇는것이 아니면 안된다. 人間의 實存에關한 무름이아님으로 人間의存在論이될것이다. [illegible] 에키도말하바와가티「그·(人間)가 如何히 이곳(Da)에잇다」(오스카, 베커의論文「[illegible]」)는것을 取扱하는것이다. 如斯히 人間의 存在論은 人間이現存在를가지고잇다는것을 取扱하는것이 아니라 도리혀 그것은 現存在가 如何한 樣式으로 存在하는가를 取扱하는것이다. 그런데 人間의存在에 關한것은 또한 모든存在者의 存在에도 關聯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와[illegible]實을 要하는事實일것이다. 하이데가에依하면 事物的現存在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現存在의 한 樣式에 不過한것이다. 이곳에서 吾人은 存在樣式의 多樣性所謂 現存在의 樣式이라는것을 생각해볼수잇는것이다. 하이데가는 이와가튼 現存在의 樣式을「存在의可能性」(「存在와時間」一二三頁)이라고 말하얏다. 하이데가는 人間現存在를 實存하다고 부르고 事物的 存在는 物在性이라고 하고 現境世界의 事物의 存在樣式은 用在性이라 表示하얏다. 如斯한 多樣의 存在樣式은 結局 現實性의 形式을 指示하는것이다.

演士·演題

異常體質兒에對하야 李炳南
空氣와健康 崔羲楹
花柳病에對하야 金應允

第二回 通俗醫學講演會

時日 十一月十四日午後七時半
場所 中央基督敎青年會館
入場料 無料 ―但 場內整理料十錢徵收―

主催 駱山醫學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新刊紹介

○訂正 昭和十一年十一月三日附夕刊第五面 新刊紹介欄에掲載分 朝光 十一月創刊一週年記念特大號 今月號에만限하야 定價四十錢을 三十錢으로 誤植되엿기에玆에訂正함

▲故鄕 (上卷) 現代朝鮮長篇小說全集 李箕永作(目次)農村點景 도라오는아들 마음사람들 春窮 마름집 새로운友情 出世談 散步 靑年會 農繁期、달밤 金先達 어리의마음 그들의夫妻 원두막 中學生 靑春의꿈 두레 一心寺 所有慾 그들의男妹 京悲劇一幕等發行所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定價一圓五〇錢 送料十錢

▲聖書朝鮮 十一月號 發行所京城府外崇仁面貞陵里三七八 聖書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十五錢

▲全滿朝鮮人民聯合會會報 第四十四號 發行所 新京朝日通日本領事館內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振替奉天一六二六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慶北佛敎 第五號 發行所 大邱府德山町二六一 慶北佛敎協會 定價一部五錢

▲主日學校申報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朝鮮主日學校聯合會 振替京城一四六三六番 定價一部四十錢

▲佛敎精要 裵裕文著 發行所 慶北義城郡 大本孤雲寺宗敎所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高麗時報 第五十三號 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 振替京城二四〇九二番 定價一部五錢

▲朝鮮銀行統計月報 七月分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一〇 朝鮮銀行 定價五十錢

讀者社交室

▲(求職)男妹올바는 某農校卒業後寫眞學校를 맛첫고 누의는 某女高를 卒業하얏습니다 올바는當年二十五歲이옵고 누의는當年二十歲 處女이외다 兩間商業에도편經驗이 잇습니다 兩間何處何事를勿論하고 하야볼決心이오니 入用處有하오면本欄을通하야 通知하야주심仰望함 求職 男妹

▲求職二十二歲의 靑年이온대 家庭事情으로至急求職코자하옵나이다 學歷은昨年에某高普를 卒業하옵고 特히 寫眞舘、家庭敎師或은書店藥局等이 有意하오며 報酬는當分間 眠食이면 足하오니有意하신분은左記住所로 通知하심을바라나이다 京城府麻浦町九ノ四 李生

▲小生今般鷄人工孵化할作定이오니 諸般注意事項을詳細히下敎하옵고(안고라)養育法과買入處도 한번에下敎하야주옵소서 大邱 一讀者

▲讀天下讀者諸賢의 萬福을祝하오며 讀者諸彦가온대 幸여나 此際朝報主催[illegible]大會에 [illegible] 乘[illegible]를讓渡하실분이게시거든 社交室을通하야 下敎하심을伏望하나이다 下示에따라 現送도可하옵고 郵券으로 代金을支拂하든지하겟나이다 明倫町에서 求本生

▲十月二十三日社交室을通하여 九月二十日頃에 求職女子에住所를알려달라고하신분에게 答합니다 小生은本住所를京城府[illegible]町

[illegible]

▲朝鮮의小說家諸先生에게 묻합니다 長篇小說材料를 求함은 左記住所로 直接問議하던지 그러치안흐면 社交室에通하야 [illegible]하시오 [illegible]

▲生은一文盲少年으로서 [illegible] 報酬는바라지안습니다 市內一文盲少年

▲養鷄實問을하신 數人께答함

▲養鷄는未經驗者가實行할때는 먼저飼養羽數의決定인데 自家의勞力、耕作面積作物의種類와 經地理的環境(市場과의距離)等을 먼저考慮하여야할것이다 副業養鷄이면 五十羽乃至百羽가 適當하다고하며 農家의副業이면 探卵本位로할것인데 耕作一反步에對하야十五羽가適當하다 農家에서는 飼料의一部(麥、粃、糠、玉蜀黍、稗)를充當할것을勘에두어야한다 [illegible] 羽數가三百을넘게 기게시우니 未經驗者는最初羽數를적게하고 技術的經驗을어든後 增加식힘이安全하다

▲本社交室을通하야 讀者諸賢께仰問하나 小生이左記와가티求하오니 其發賣所를 下敎하야주심을 仰望하나이다

記

改正된朝鮮小作調停令 全文
改正 朝鮮農地令 全文
米穀檢査法 全文
朝鮮信託業法施行細則 全文
法學硏究會編纂判例大全 (親族相續) 以上

京城 8、0、8生

▲獨學者諸兄의 健全한몸으로 燈火를親하할이秋節의 全力을傾注하여 勉學하여주시요 同如한 環境의諸兄을爲하여 誠意껏[illegible]하옵나이다 小生은普通學校를 겨우卒業한 獨學者이온대 醫師를志望하고 醫學을自習할까하옵는데 家庭의職業을가지고라도 三四年間勤勉히準備한다면試驗의能力을어들수가잇슬까요 準備를하라면 如何한書籍等이 必要하오며 如何한準備方法이第一近速할지요 朝鮮內에서施行하는受驗資格所 期日課目其他諸般參考되는것을 좀詳細히 下敎하여주심을 先進經驗을가진 諸兄과現在準備中의諸兄께 懇望하오니左記住所로 下敎하여주시옵든지社交室을通하여 下敎하여주시든지하오면 一生의恩惠로 感謝하옵겟습니다 醫學에對하여서는 全然盲目의初步이옵니다 黃海道甕津郡馬山邑 李在斗

▲李觀濟 金大昌 南夕鍾三兄 現在는 어디인지요? 이欄을보시거든 左記住所로 通信하여주소서 全南寶城邑永倉學校 睦一個

▲讀者諸賢께 뭇습니다. 生은 文學을 工夫하고자 上京하야圖書館에를 좀 단여보려는데 여려모로 下宿經營하시는 分이나 또는 生과가티 [illegible]코자하시는 分은 合宿도조코 獨居도조흐니 左記住所로 通知하시기 바랍니다. 單只 生의나이는 二十一才의 靑年입니다. 京畿道平澤郡[illegible] 崔和三

▲榮譽를 배홀려면 어듸까지던을 求하여보아야 第一適當하겠요 어데서 파는지도 몰나 배우알고십흐나 가슴만 답답할뿐이옵니다 手苦스러우시나 알려주시면 대단감사하겟나이다 黃海道金川郡[illegible] 讀者[illegible]方

▲生이古本販賣商을 經營코저하옵는바 京城이나 日本內地의 古本販賣商(卸賣商이나 또는小賣商)을 下敎하시요 平南[illegible] 一生

演芸

舊樂復興의이壯擧! 興甫傳도歌劇化

오는六日부터東洋劇場에서

조선성악연구회에서 가극춘향전을 상연하야 만도의 인기를 끄으므로 구악부흥의 새로운맹명을 발휘하고 드디여 전래의 걸작을 모조리 가극으로 고치기로 계획한후 제이차로는 흥부전을 가극화하야 방금 전회원총동원(全會員總動員)아래 맹렬한 연습을 계속하야 가는터로 전회와가티 본사후원(本社後援)의 후원을 벌어서 오는 륙일로부터 닷새동안 시내 동양극장(市內東洋劇場)에서 공연키로 되엿다 흥보전은 다아는바와가티 형제의 우애를주제(主題)로한 조선의 오래된전설(傳說)로서 춘향전과 함께민중의 매력속에 가장기피 배여어 잇는바어니와 전번 가극춘향전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각색(脚色)과 배역(配役)을 좀더 신중하고 충실하게하는 것은 물론이요 될수잇는데까지 소리를 만히 넛는동시 소리업는 장면을 적게연출하여 가극의기술로서도 적지안흔 향상을 보이어잇는터라 금번공연이 더욱더 일반의대환영을 밧게될 것이라고 구든 자신을 가지고 잇는모양이다。가극춘향전이 한번 공연되매 서내각처로부터지방흥행의 의뢰가 답지하야 혹은 성연으로 혹은 본사로 격찬의 말슴을 보내주는동시 다소의 결함을 지적하야 주신분들도 업지 안흔데 금번에는 그분들의 말슴을 참고삼아 미세한데까지 주의에 주의를 더하얏다。물론 성연의 가편는 못허지는 아직도 멀고멀어 짜른 시간으로도 저히 도달하기를 바랄바가 아니나 성연회원의 분투노력이매 비상히급한 영모로 발전되야가는것은 부인치 못할 것이다

本報讀者에는 各二十錢割引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에서 종래로부터 본사와 특별한 관계를 매저 오든 것은 어미 세간에서도 잘 아는 바이어니와 이번 흥보전을 공연함에 임하야도 동회에서는 본보독자를 우대하지 안하서는안 되겟다고 생각하고 게상 게하를 통하야 각 이십전식을 할인키로 되얏다。

보라!드르라! 適役의名唱들

놀보	吳太石
興甫	丁南希
놀보처	林小香
흥보妻	朴綠珠
놀보자식	成壽香
흥보자식	徐淵九
同	金任壽
同	李錦草
同	曹賢子
同	金楚玉
同	金此敎
呼[illegible]	金演洙
遊[illegible]	趙相鮮
下人	徐淵九
同	曹南承
同	姜太弘
同	金世俊
三月이	成壽香
藥[illegible]	金任壽
역軍	趙相鮮
역軍	曹南承
同	姜太弘
센[illegible]	金演洙
상엿[illegible]	丁元燮
장[illegible]	趙鎭榮
同	李錦草
同	曹賢子
同	韓山月
同	金楚玉
사당때	趙鎭榮
同	李錦草
同	韓山月
同	金楚玉
同	曹賢子
장수	曹南承

寫眞은 興甫傳을練習하는光景

歌劇興甫傳의梗槪

—三大名作中의하나—

우리가 과거 古文學作品이란 그다지 變交가만흔것도 아니지마는 그中에서도 가장 人口에 膾炙되고 따라서 民衆의 感情生活에 가장 거때 影響된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첫째 春香傳과 興甫傳과 沈淸傳의 三大名作을 들수가잇슬것이다。

이 세作品은 벌써 文學作品도 아니고 戱曲도아니고 小說도아니다 다만 우리네 感情生活에 엉키어서 여쟝 愛唱하고 親和되기위운 한개의 作品이다。

이러한 作品이 傳唱되여오는데엇재 音樂 唱劇的으로 직혀온것은 文學 그것보담도 오히려 音樂에 치엉으바가 제일컷든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音樂에엇서서의 唱劇이라는것은 時代와 變遷에따라서 多少의 改新할必要가잇다고 朝鮮聲樂硏究會에서 지난번에 春香傳을 歌劇으로 上演하야 絶大의 效果를 收獲을 거둔것은 斯界에 關心을 가진이로서는 다아는바이지마는 이러한·意味를 千萬로해서 다시 三大名作의하나인 興甫傳을 上演하기로되엿다。

興甫傳이란 어떠 우리가 다아는만큼 새로운 說明을 加할 餘地도업지마는 春香傳이 貞烈을테-마로한데 比해서 이것은 友愛를테-마로한것이다。따라서 貪虐無道한 놀보와 純眞無垢한 興甫의 性格도 相當한 程度로 鮮明하게 描破되엿고 時에 도한 無道人心에對한 辛辣한 諷刺가잇는 寓話이다。

第一幕은 先祖의 世業을바뎌가지고 困窮하든 興甫의 妻子를 놀보가 쪼차내는場面이다。嚴冬雪寒에 兄의집에서 쫏겨나 無依無托하게된 興甫는 卒地의 天涯의 寡婦와가튼 身世이면져도 또한 약한안해와 어린자식들을 다리고 갈곳이업시되엿다。

第二幕은 兄에게 쫏겨나와서 집도업고 먹을것도업서 四方으로 求乞하고 가진苦生을하는中에도 興甫의 마음은 변하지안허서 自己의 分數에 맛당한生活을한다。이러한 興甫의 마음이 하늘에도 알려진바잇섯든지 道僧의 指導를 바더서 다른곳으로 이사를해서 살게되는데그때는 憂患疾苦도 돌하고 村사람들의同情을바더 논마지기도어더부치게되니 좀 살기가 나어젓다。

그러는동안에 우리가 다아는바와가티 제비가 차저왓다。흥보의 순진한마음이 제비를 동정한 보은표로 갓다가준 박씨에서 큼은부가 나와서 흥보는 一時에 富者가되엿다。이것이 第二幕의 梗槪。

이러케되니 홍보는 兄의생각이나서 가려살기를 원햇스나흥보의안해는 이전 어린자식을안고 쫏오겨올에 석아주버니에게서 쫏겨나든생각에 明敏感心하야서 應從하지안햇다。

놀보는 홍보의 잘산다는 소문을듯고 욕심이나서 홍보집으로 차저갓다。살림에도 욕심이나러니와 우선 홍보가 부자되는데 제비가 갓다준 박씨로인해서 되엿다는말을 듯고서 저도 꼿 집으로도라와서 안해와의론하고 일부러 제비집을만들고 기달렷다。어찌 천도가무심하랴? 貪慾한 놀보의 辭바들에는 닥치와다。果然 제비가 오고 박씨를 갓다주고 박이열리고 모든것이 홍보의일과 흡가테 되엿다。그러나 나중에 박을 타고보니 그속에도 돈도 나오고 초라니도 나오고 大修羅場을 이루에서 勸善懲惡하는 이劇은 大團圓을 이루엇다。

라듸오

四日(水曜)

◇午後六時 하-모니카獨奏와二重奏 二重奏 一、비자도레·마치-스-자作曲 二、잇지를 말어라…만떼드作曲 獨奏(崔鳳圭) 三、그리운故鄕…片岡正太郞編曲 二重奏 四、音樂의 한때…슈-베르드作曲 獨奏(白應圭) 五、戴冠式行進曲…메여베-어作曲 二重奏 六、國民式行進曲…古本光彰作曲 第一하-모니카 白應圭 第二하-모니카 崔鳳圭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分 趣味講座 金晉燮

◇同七時三○分 講演 「春香이야기」 朝鮮語學會硏究 李在郁

◇同八時(東) 長唄

◇同八時二○分 蓬山打令外 一、蓬山打令 二、山念佛 三、자진아리랑 四、打令 五、朴淵瀑布 崔貞子 金秋月

◇同八時五○分 唱劇調 一、短歌……大丈夫 二、唱劇調……春香傳中新官到任하는데 歌手 丁貞烈 丁元燮

第一放送

◇午後六時(東)이야기

◇同七時三○分(東)講演

◇同八時(東) 獨唱

◇同八時二○分 소리

◇同八時四○分(東) 管絃

◇同九時五○分(東) 落語

五日(木曜)

◇午後○時五分 報念外 一、報念 二、육자백이 三、興打令 四、개고리타령 金蘭玉 金錦玉

◇同一時一五分 趣味講座 文藝의女性觀(一)「꾀꼬리의女性」 曺希淳

◇同六時 獨唱과器樂獨奏 바리톤獨唱 美浦三郎 一、第一高等校歌 二、荒城의月 빠이올린獨奏 鄭郎錫 一、라-꼬…벤델作曲 二、자장가…하으사-作曲 피아노獨奏 尹琦善 一、幻想曲 二、봄…그리-그作曲 一高音樂部員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分 課外講座 "漂泊이야기" 淑明女高 李活紀

◇同七時三○分 講演 "生活에對한東西人의美點" 鄭[illegible]泰

◇同八時 音樂 靈山會相 玄琴 李彦植 洋琴 李秉煥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細笛 [illegible] 杖鼓 李章夏

◇同八時三○分 라듸오드라마 "最新手術法公開"全三幕 放送劇新人會

◇同九時 雜歌 一、執杖歌 二、平壤歌 三、제비가 四、잦모리 尹一枝 朴玉紅

第一放送

◇午前一○時三○分(東)婦人의時間

◇午後○時五分(東)漫才

◇同一時 常識講座

◇同六時(大)音樂物語

◇同六時二五分 山田朗讀講話

◇同七時三○分(東)講演

◇同八時(東)常磐津

◇同八時三○分(大)抒情組曲

◇同八時五五(東)浪花節

曆

十一月五日(木) 陰戊戌九月大(廿二日) 辛卯·木·井·執

●祭祀·嫁娶·移徙·裁衣·上樑·卯時開市 納財·安葬·修造에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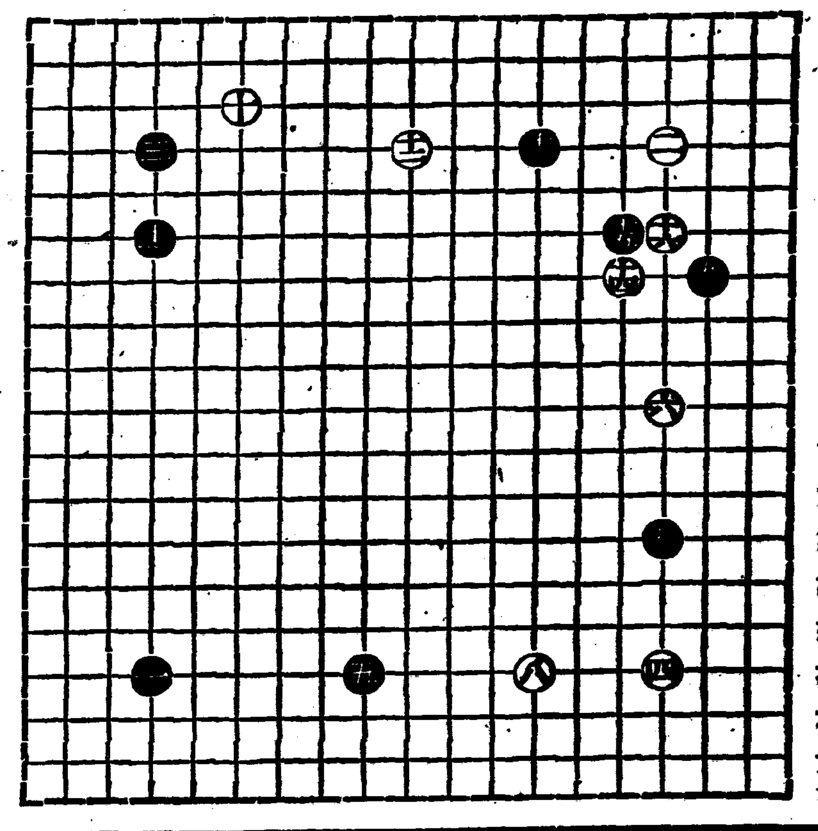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第二十四日)

圍碁對局譜 —1—

本社主催

白 蔡極文 黑先 權寧都



●	一	巳의十六
○	二	丁의四
●	三	巳의四
○	四	丁의十六
●	五	子의十六
○	六	丁의十
●	七	丁의十三
○	八	庚의十六
●	九	丙의七
○	十	卯의三
●	十一	巳의六
○	十二	癸의四
●	十三	庚의四
○	十四	戊의七
●	十五	戊의六
○	十六	丁의六

觀戰者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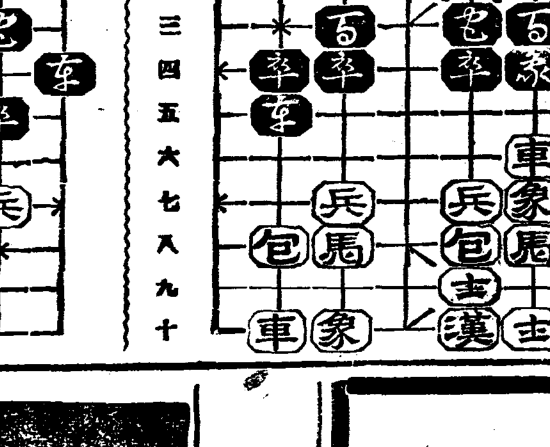
此回는 新進氣鋭와 老鍊手腕으로 一場試合은 觀光趣味가 倍加一層될으로 豫想하노라 黑巳의十六巳의四 白丁의四 丁의十六은 在來式通俗點을 使用함이나 黑의位置가 相當하고 黑子의 十六巳의六과 白卯의三 戊의七은 地盤占據로 看做된다

將棋名手對局譜(三)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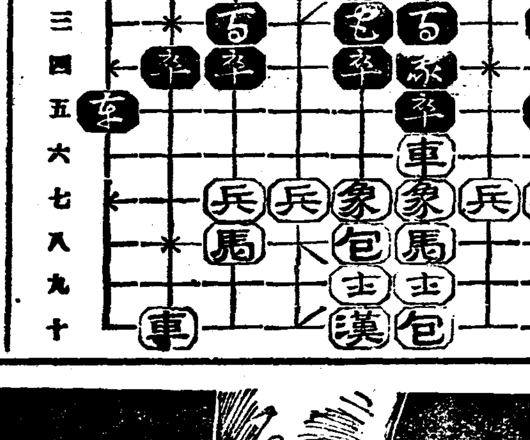
漢先手減一兵 李在鳳 對 盧世楨

◀二十手圖▶



戊七兵—己七 丁二士—戊二 庚十象—戊七 甲一車—甲四 辛八包—己八 辛五卒—壬五 丁十士—丁九 丙四卒—丙五 己六包—丁六 丙五卒—丁五

◀三十手圖▶



朝鮮日報讀者優待券

「興甫傳公演」(十一月六日부터五日間東洋劇場에서)

入場料 階上九十錢 階下七十錢을 七十錢 五十錢으로

一人一枚

淋疾

淋疾과가튼細菌의感染에依하야惹起하는疾患에細菌學的療法——即외구친療法이가장適切함을學界에서共通하게承認한바이다

本劑는 외구친을 特殊方法으로써處理하엿고 그抗原質을數倍量含有하야외구친의效果를增强식힌과同時에칼슘及 호르무알데히-드를游離식히는 우로사민을配給하야 創製한것이다。따라서單純한化學的藥劑와달라 淋疾의動滅에效果가잇고排濃의制止、疼痛의鎭靜、防腐利尿의作用이 著大하야急性症에잇서는 不過三—五回의注射로濁尿의淸澄을볼수잇고 自覺症狀의消失을認定할 을엇는다

適應症 淋毒性合併症、睾丸炎、攝護腺炎、膀胱炎、子宮內膜炎、卵巢炎、喇叭管炎等…

用法 一回一管(二〇竓)宛 毎日に靜脈に注射す

包裝 五管入 十管入 三十管入 五十管入

네오가루고노-겐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NC 76

● 腦의疲勞

熱務 讀書 工夫 徹夜 等에 腦過勞時에

ノーシン 노-신

服用하면 腦의疲勞는 速히快復하야 ... 明快 全國藥店에잇슴

明快

マツダランプ 마쓰다람푸

マツダ眞空管 마쓰다

必備品二個

マツダ

東京電氣株式會社

冬物 東洋一大商品 ...

名古屋市東區千種町今池電停前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電話東四八二九番 振替口座名古屋二八九番

輕便洋服收納器

輕便洋服收納器(服掛三個付) 一個代金二圓九十錢(二個以上割引)

長三尺八寸 一個宛ボンダール入折疊式

本品은四方의카텐을치서버리고치가마음대로되며 上段에는四五着 下段에는 이사쓰 네크타이 等을넣을수가잇습니다 取扱키便하고 ... 折疊式으로 ... 不取扱 ... 도 아니 못하 ... 옷을 입을수가 잇습니다

柱掛洋服收納器(服掛一個付) 一個代金一圓八十錢

圖入寸法 長一尺六寸 巾七寸

本品은 洋服一着分과 와이사쓰等一切를 收納할수가잇는 優美한것입니다 折疊式一個宛ダンボール圖入

(特約店募集 規則書送呈)

小包送料 一個六十七錢 二個九十三錢 三個九十九錢 四個一圓五錢

伊藤利商店 名古屋市中區 ... 電話中三九九六番

朝鮮日報 江華支局 電話三一番

十一月三日부터每日晝夜二回上映 ○午後一時半七時始映○ 料金 大人三十錢 小人十五錢 階上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滿天下待望旣久!三鄕土藝術의金字塔!! 市然한人氣!우리가全歡呼!!熱과意氣의結晶!!

◇京城撮影所超特作朝鮮名畫 朝鮮語全發聲 春香傳 全十一卷 李銘牛氏…金蘇峰氏監督作品 主演 朴齊行、韓一松、崔雲峰 林雲學、李鍾哲、文藝峰 盧載信、金蓮實、金英淑

◇京城撮影所超特作品 朝鮮語全發聲 아리랑고개 監督…洪吐無氏 主演…文藝峰、盧載信 朝鮮의자랑 民謠아리랑의 映畫化로 꿈는靑春男女의 서랑의受難史!!

新堂町 新富座

四日ヨリ五日間 佛O·F·O·プロ超特作日本版 ジャン·ミューラ★ヴェラ·コレーヌ★ジャニイヌ·クリスペン主演 ▲第二情報部 L·O·超特作新日本音楽映畫 北澤かず子·藤山一郎·徳山璉主演 ▲かぐや姫 モスクワ·キノコムビナート特作 日本版(ソヴエト映畫) エル·オルロワ主演 ▲陽氣な進中 大人·五○·學生小人·三○

若草映画劇場

十一月一日부터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마스코트社超特作全發聲版 浪漫活劇 뒤는幽靈 中篇 主演 렛도구렌지氏 리부스·이-손氏…監督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版 西部劇 아리소나性盜列車 監督…로-스레라-만氏 主演 렛도맛코가리바기氏

マキノ超特作パートトーキ時代劇 花の遠山櫻 監督…松田定次氏 主演…月形龍之助氏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現代물 少女の感情 ... 라인悲愴曲 ...

第一劇場

米穀出廻依然不振
數千從業員恐慌
府內數十精米所도極히狼狽
一般商界에影響不少

【平壤】 계속된 흉재의영향은최근 평양곡물시장에 직접반향되고 잇서서 정미업자들과 여기에 따르는 수천로동자들에게 까지 일대공황을 던지고잇다

평양부내에서는 최근이미곡홍수긔(米穀洪水期)로서 부내각미곡업자의 창고와 점두에는 미곡의 "홍수"로 안비박개의 서긔일터인데 미곡의 홍수는커녕아조 한산하여서 업자들은 파리를 날리고잇는 현상이다

명우하 수천처의 정미업자들은 미곡의홍수를 상상하고 작업을 급진행코저 전부의 준비를 맛치고 대긔(待機)하는터이다 원료인 정조(正租)가 반입(搬入)되지안어 정미업자들과 로동자들은 극도의 랑패를당하고잇고 미곡시장에서 미곡운반을 목표로 모혀잇는 수천로동자들도 미곡의출회(出廻)가 극히한산하기때문에 오로지 업동을압두고 공포중에서 한숨지우고잇다

미곡의출회부진은 미곡업자에게만 반향할뿐아니라 평양의경제계가 미곡출회동력(原動力)으로하여 운전되고 잇는만큼 시내의 전반경긔에도 퍽도 중대영향을 던저주고잇다

그런데 곡물의 출회부진으로한재로 대감수된것이 옹진일수업는 중요원인일것이나 갓득이나 생산이적은 출회정조를 강제검사를 하기때문에 시장에 나타나기까지에는 작구한 시일이걸리고잇는 사실도 부인할수업는 현상이라한다

穀港南浦도閑散
多數當業者悲鳴
比前年出廻萬餘石減

【鎭南浦】 미곡으로 생명이되여잇는곡항 진남포는 례년가트면 부두(埠頭)에는 롱강일대와 연안황해도방면에서 벼가드러와산가리싸이여 그야말로미곡홍수긔(米穀洪水期)라고하는 이즈음진남포부두일대는 극히 한산하여 곡물의 출회긔는 두절상태에잇다고한다 십월중에 드러온곡물은 정조(正租)일만칠천륙백사십팔석 현미(玄米)구천일백이십사석 합계 이만륙천 칠백칠십이석으로 전년동긔에 비하여도일만오천오백팔십오석이나 감소되엿다는바 그원인은 여러가지원인이잇다고하나 중요한원인은작년이래 실시되고잇는 정조검사(正租檢査)제실시에 잇다고한다 따라서 방곡주야로 작업을 하여야할 대소정미소가 종업을중지하고 잇스니 당업자들의손해는물론 수천로동자들까지 엄한이닥처오는이때 생도가 막연케되엿다고 하며 미곡이생명에원동력이되여잇는 진남포이니만치 각방면에 밋는 영향은 실로막대하여시내경긔에도 상당한반영이 되여잇다고 한다

興南邑制施行 五週年記念式

【興南】 홍남이란본이함주군운전면 일부의(雲田面一部)적막한어촌(漁村)이엇든바 소화이년일월조선질소회사(朝鮮窒素會社)의창립으로말미암아 급속히발전되기시작하야 동오년에는 인구이만오천을 돌파하엿기로 동년십일월일일 운전면일부십일개리(十一個里)를떼여가지고 새로홍남면이라고칭하여 왓슴이 오늘의홍남의긔원이라하며 그로도 면으로는 모든행정사무에불충분하기로 그이듬해인 륙년십일월일일에는 읍(邑)으로 승격하야 이래오년동안 창속발전을하야 지금은인구오만이 접근하며재정으로도 금년도예산만이이십륙만구백여원에 달하는 북조선유수의 일대도시를 형성하엿다하며 아프로도 함중철도흥남축항(咸中鐵道興南築港)문제만해결되는날에는 전조선유일의 공상업도시가 될것은 명약관화의일이라한다 이리하야 지난십일월일일은 오주년긔념일에 해당하기로 읍내에서는 관민유지백여명을 초대하고 성대히축하식을 거행하엿스며 읍행정공로자이십오명의 표창식까지 겸행한후 동오후이시경 무사히페회하엿다한다

殷栗支局主催의 經濟大講演會
—大盛況裡에閉幕—

【殷栗】 귀보=서춘씨(徐椿氏)초청의 경제대강연회는 삼십일일오후칠시반에 본보 은률지국장리긔방(李基防)씨 사회하에 개회되여 대만원의성황을 일우엇고해동관(海東館)에서 선생환영회까지 성대히하엿다고한다

裡里邑開設의 廿五週年記念

【裡里】 리리읍에서는 지난십일

◇…(上) 全朝鮮卓球大會의優勝者와 入賞者
(下) 第一回京平對抗拳鬪大會入場式光景(平壤)

懸案中의利原 體育協會創立

【利原】 함남리원군에는 체육과관이업서 오래동안 현안중에잇서서 일반은 심히유감으로 녁이던차에 지난시월삼십일일에전군내유지가 사십여명의 회합으로 발긔준비회대표 장명동(張明東)씨가 발긔문설명과 규측제정통과와 예산안통과에 이의업시채결되고 다음에 역원선거가잇섯다

◇決議事項
一、規則制定通過
一、豫算案通過
一、會員募集
一、役員選擧
一、其他

◇役員會長吳致翰 副會長井上長藏 總務尾西鶴吉
庶務部張明東 部員若干名
會計部長津ヶ谷周治郞部員若干名
野球部長金相兌 部員若干名
庭球部長韓秉萬 部員若干名
蹴球部長李濟國 部員若干名
陸上競技部長姜洞鍾 部員若干名
籠球部長李朴殷 部員若干名
卓球部長吳興敎 部員若干名
柔道部長淸家一雄 部員若干名
劍道部長[illegible] 部員若干名
脚戲部長金亨植 部員若干名

盛況일운 經濟講演會場(殷栗)

"삿"製造業者生命線
蘆草問題遂解決
鍾紡서百卅萬貫供給으로

【新義州】 종방(鐘紡)어견공장의 신의주진출에 따라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여잇던 원료(原料)인 로초(蘆草)매수문제는 룡천군(龍川郡)과 신의주의 삿제조업에 중대한 영향을줄터이어 도산업과에서도 지방산업보호 조장견지에서 원료공급에대하야 회사측과 타협중이엿든데 수일전 종방에서 "삿"제조용으로 건조한 로초일백삼십만관(貫)을 한도로 "삿"제조조합에 공급하겟다는 조건부로 원만해결되엿다한다

災地伊山地方에 眞性赤痢發生

【榮州】 경북영주군내 풍수해가 심한곳인 이산면신암리(伊山面新岩里) 신내(新川)부락은 지난 이십오일경부터 적리병환자(赤痢病患者)가 발생하엿스므로 당지경찰서 위생계에서 김공의를 대동하고 당지에 출장하야 삿삿이 검사한결과 진성적리로 판명되엿스므로 즉시일반의 교통을 두절하는한편 경계하는중이라는데 일반이 특히 주의를요한다고한다

地方人事

◆笹川恭三郞氏(咸鏡南道知事)新任人事次二日本報咸興支局來訪
◆文泰洙氏(咸興土地金融株式會社專務)同上
◆金智龍氏(咸興土地金融株式會社支配人)同上
◆坂元常德氏(江原道警察部高等係勤務警部)新任人事次 本報春川支局來訪
◆竹內善納氏(熙川署長)新任人事次 本報新義州支局來訪
◆酒井孝作(朔州署長)同上
◆金振宇氏(書藝家)來京人事次本報新京支局來訪

例의咸慈線用地
結局收用令適用
來十二日에土地價格을發表
今後의地主態度를注目

【咸興】 관계지주와 및 세상의 이목을 총집중시기고 잇는 문제의 함자선이등도로(咸慈線二等道路)하갈(下碣) 사수(泗水)간 일만삼천여평의 토지는 수개월전부터 지주와 회사와의 사이에 매수교섭을 거듭하야 오든바 결국 교섭은 결렬되야 회사로부터는 토지수용령 신청을하게되야 방금 도당국에서 각금융긔관의 지시가재결(裁決)에긔준하야 그지시가감정서를 작성하는 가운대에 잇는바 그동안 지사의 개질로서 긔보와가티 지난이십구일까지 긔한이든 지시가재결공포도 오는오일로 연긔되엿스며 따라 수용(收用)단행도 전덜 삼십일이던것을 연긔하야오는 십이일에 수용하기로 되얏다

문제만튼 이토지매수도 결국 십일만지나면 수용이 되여 일단락을 짓게될것이며 오는오일 공포되는 함남지사의지시가재결을 보고서 다시 지주들의 태도가 어떠케 움지기게 될는지 더한층 주목된다고한다

凱歌는京城基靑에
平壤奬武對基靑拳鬪

【平壤】 평양장무회(奬武會)주최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개최되는 일회경성긔청(京城基靑)과 평양장무회(奬武會)의 대항권투전은 예정대로 이일오후칠시 사십분부터 백선행긔념관(白善行紀念館)특설링에서 성대히 개막되엿섯다

경성군감독장권(張權)씨와 평양군감독 리종삼(李鍾三)씨에게 인솔된 양군이 「링」후에 라립하자 입장식이 전개되니 위원장로진설(盧鎭卨)씨의 개회사가 잇슨후 양군주장의악수로 입장식은 끗마치고 이천여관중의 박수성리에서 「오픈께임」으로 장쾌한 막이는시작되여 양군이 그야말로최후일각까지 선전한결과 삼당(南山食堂)에서 양군과 임원일동의 간친회가 열니어 삼이분의 친목을 도모한후 산회하엿는데 이날의전적은 다음과갓다

◇戰績 (○은勝×는敗)
【오픈께임】
○(京城)金仁鎬 判定 (平壤)沈亨烈×
【플라이級】
(京城)鄭俊鎔 無勝負 (平壤)崔永植
【밴텀級】
×(京城)金相敦 判定 (平壤)鮮于熙○
【페더級】
○(京城)康仁鎬 判定 (平壤)玉鎭求×
【라이트級】
○(京城)姜潤道 判定 (平壤)金燦紹×
【웰터級】
○(京城)楊重麟 KO (平壤)車淳昌×

平壤籠球聯盟戰
第一、二兩日間經過

【平壤】 평양숭실전문학교 체육부주최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개최되는 제륙회평양롱구련맹전은 십팔만시민의 열렬한 기대미테서 개막되엿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제일일 제이일의 전적은 다음과갓다

第一日戰績
光高(B)30（20 10…6 1）7平農
崇實(A)29（12 17…12 11）23西洋人

第二日戰績
崇商(A)25（9 16…13 8）21崇實(B)
平農17（12 5…24 18）42光成A
崇實(B)41（32 9…6 5）11平農
西洋人26（12 14…11 10）21平商
崇商(A)22（6 16…6 12）18光高(B)
崇實A 25（21 4…3 4）7崇商B

龍岡基靑聯合會
懸賞雄辯盛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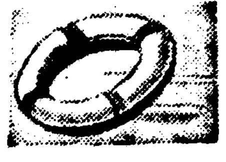
【鎭南浦】 긔독청년면려회룡강련합회(基靑勉勵龍岡聯合會)에서는 지난이일 오후칠시부터 진남포장로교례배당에서제이회현상웅변대회를 개최하엿는데 련합회지음부장김인학(金仁學)씨의 개회사가잇슨후 진남포와 룡강군내에잇는 열한곳교회에서 한사람식 출연하여 각각대대로열을 토하엿다 심판원송정근 허덕화 김지학(宋貞根許德化金智學)세분의 엄숭한 심사로 입상된이는 아래와갓다고하며 당일청중은 무려일천여명으로 공전에대성황을 이르웟다고한다

一等 龍岡郡多美面芝沙洞 羅熙昌
二等 鎭南浦聖信學校 宋榮柱
三等 龍岡郡陽谷面南山里 金吉命

居昌에도初氷

【居昌】 요지음북국의결빙 강쇠로 겨울소식을 전하는이때 경남거창지방에도 매칠전부터 갑작이일긔가추워지드니 지난이일아침에는 그릇에 담어두웟든 물이 오픈가량 어름이 업엇다고한다 이로서남쪽나라에도 얼릉이왓다

愛慾의彼岸



【141】 李光洙作 金康穆畵

은주는 김장로일행을 정거장으로의 집까지 안내하고는 초연히 금은상회로 돌아와왓다. 그래도 문임이가 무슨 핑게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은 차저오려니하고 아침 저녁 기달려것다. 은주도 오래 마음속에 그리던 혜련을 일코 또 문임도 일흔가 시플때에는 심히 적막하고 낙심됨을 깨달앗다. 자긔는 괘니 세상에 난 사람 가탓다. 제가 세상에 잇서야 잇는줄을 아는 이도 업고, 또 금시에 세상을 떠나버린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사람도 잇을것 가티 아니하엿다. 날마다 이 가게ㅅ구석에 들여박여서 한ㅅ푼ㅅ중, 두푼ㅅ중 하고 흰 쇠, 누런 쇠를 달아파는것으로 보내는 일생. 이것만을 하고 잇으면 입에 밥은 들어올 모양이다. 그러나 인생이란 이러다가 말것인가——은주는 요새에 하로에도 몃번씩 이런 생각을 하게되엇다.

얼마전까지 [illegible] 은주의소망의 전부엿다. 혜련을 생각하면 모든 고적함이나 괴로움이 이저젓다. 시끄러운 주판을노타가 피곤해서 정신이 흐려지는 때에도 혜련을 생각하면 새정신이 번적들엇다. 그래서 그러케도 간조무미한 생활이언마는 괴로운줄도 모르고 도로혀 일종의 소망과 기쁨을가지고 살아왓섯다. 그러나 혜련은 일허버린줄을——일허버렷다고 은주는 생각한다——안 뒤로는, 눈치챈 뒤로는——눈치챗다는것보다도 자각한 뒤로는 은주는 무슨까닭에 사는지 몰라서 가끔 저를 일허버렷다. 그래도 혜련에게 대해서 전연히 희망을 끈키는 문임이가 밤에 차저온 때부터엿다.

은주도 젊은 남자인지라, 마츰내 문임에게 끌려서 넘어가고말앗다. 만일 그날밤의 문임의강렬한 유혹이아니엇더들 은주는 일생에 혜련의 긔억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갓슬는지도 모를것이다. 한번마음에 정한것은 변할줄을 모르는 은주, 그것은 결국 은주를 슬픈 운명에 끌어너흔 미덕이엇다.

그날밤 문임과 마음을 매즌뒤로부터는 은주는 비록 잠시라도 혜련을 생각하는것이 죄인것 가타서 혜련의 모양이 마음에 떠오르면 칼로 잘라버렷다. 은주는 혜련에게 대해서 배반하엿다는 괴로움을가지거니와 다시 문임에게 대해서까지 배반하고 실지아니하엿다. 일생에 문임에게 대해서나 변치아니하는 신의를 지키리라고 맹세하엿다.

문임이가 그날밤에 당장 을이서 시골로 달아나기를 권해노코서 김장로를 따라서 원산으로 가는것이나, 원산 간뒤에 자조 편지하기를 약속하고는엽서한장밧게 아니한것이나 모도불쾌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햇지마는 그래도 설마하는 생각으로 잇서던것이엇다.

문임이가 원산에서 돌아온후에 한번도 은주를 찾지아니하는것도 부득이한 사정이아니하고 한편으로는 용서도 하라고하엿다. 무론 은주의 가슴은 타고 끌헛다. 어것은 은주의 낫빗과 입설에 나타낫다. 낫비츤 초췌하고 입설은 말랏다.

가끔 은주의 마음속에는 질투의 불낄도 일어낫다. 은인인 김장로의 품에 안긴 문임이 상상해질 때면 아피 캄캄해지는것 가탓다.

『그러나 설마』

하고 은주는 호의로만 문임의심정을 해석하려들엇다. 그리고 도로혀,

『아아 내가 왜 내 애인을 의심하는고? 내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이를 왜 의심하는고? 죄다! 죄다!』

하고 스스로 책망하엿다.

하로는 은주가 오늘도 문임이가 아니 오는고나』하고 가게를 들이려고 덧문을 다 닷고 한짝만 안 닷든채로 머니찬 바람 부는 거리를 바라보고잇을 때에 종로에서 전차를 나려서남의 눈을 피하는드시 사방을 돌아보면서 금은상회쪽으로 걸어오는 여자가 잇섯다. 그것은 문임이엇다.

은주는 가슴이 뒤집히는듯한 흥분을 가지고 한 걸음 문바게 나섯다. 그래도 마츰내 차자오는고나 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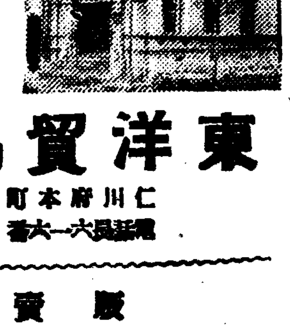
문임은 잠깐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는 또 뒤를 돌아보면서,

『어서 들어가서요』

하엿다.

은주는 둘재ㅅ순간에 문임이가 무슨말을 가지고 왓는고? 하고 얼굴이 흐려젓다. 그것은 문임의 낫비치 반가운 표정이 아니엇기때문이엇다.

營業科目
米 雜穀 肥料 砂糖 麥粉 雜貨 麻袋 海産物
代表者 鳥居 千里
支配人 荻野 四郞



本店
東洋貿易商會
仁川府本町二丁目
電話長一六〇番・八一一番
販賣部
仁川府內里二〇五
電話九三五番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一種五圓十圓で敎へた秘法叢く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萬國秘傳秘法百科寶典
不向返金
▲人心觀破の秘法 ▲卽座に身の秘法 ▲思ふ事叶ふ秘法 ▲男女交際の秘法 ▲白髮を黑く ▲秘密通信の秘法 ▲香水製法 ▲無錢旅行の秘法
▲男女相愛の秘法 ▲不老長生の秘法 ▲男女生み分け ▲秘傳秘法
▲肥らせる秘法 ▲痩せる秘法 ▲梅毒根治法 ▲脫肛根治法
其他數百種あり一として實行出來ざるものなし至急御註文を乞ふ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新聞掲載特價 定價二圓の處 特價一圓九十六錢 送料十九錢
「萬國」で申込まれよ

新貳百番ASB型ダイアナ式元込單發 (實物縮寫)

新八拾番ミリタリー型元込單發
ボータブル型手提活動寫眞機

百發玩具
空氣銃
カメラ
京城淸進町三番地
卸問屋京城玩具本店
特約店을希望하시는분은商談함
(申込次第カタログ送呈)

空氣銃의最大需要期는가을부터겨울……
直面非常時!
店頭의人氣商品으로꼭活用하시라……

(許可不要使用)

때는正히空氣銃熱狂時代입니다

皮膚病良藥
테-무水는
◎殺菌作用으로 皮膚病의 病虫을殺滅하고 乾燥性이되게하고
◎消毒作用으로 患部의 毒素를分解消滅하고
◎收斂作用으로 患部를緊縮게하야 낫게하며
◎滑澤作用으로 皮膚를圓滑하고潤澤하게한다
피부병良藥 데-무水
●말으옴 ●옴(습진) ●두옴 ●옴 ●태독 ●부스럼 ●진물은데 ●가려운데 ●부름 ●헌어룬데 ●버짐 ●頑癬 ●피풍 ●여드름 ●죽은깨 ●농가진(膿痂疹) ●흑내 ●콩파은데 ●물사마귀 ●모기 ●닥귀, 빈대毒虫의刺傷, 皮, 脂腺에 使用하고 쓰리지안코알프지안코 눈에 안띄고냄새업시用法이簡單하며 속히 낫소
테-무水藥價(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藥店에서販賣함、萬一品切時는 代金을直接往來하야左記發賣元으로注文하시면 卽時送呈함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 電話芝四七四番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五五八八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
販賣店이만히잇사오니 테-무水라指定하야 쓰시기바랍니다

純在來式朝鮮酒
松一藥酒
海月濁酒
大賣出シ
地方特約店募集
開城府大和町二六七番地
大和釀造場
電話三八四番・九番・四六五番
主 金麗鍾

院長 醫學博士 李丙勳
副院長 京城醫專卒 河野武
外科一般
レントゲン科
入院隨意
植村外科病院
京城府永樂町二丁目八五
電話 病院用 本② 〇二七〇番
自宅用 本② 一七九二番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經濟解說 産調答申檢討 ⑧ 大資本傘下에支配

洪鍾仁

日前朝鮮總督府産業調査會의 決定으로發表되엇바 産業經濟調査會答申案中에는 新設을要할것이라는項目을 보면

▲民間資本에 依한 造林計畫助成 ▲無水酒精生産 ▲化學的窒素肥料의 生産 ▲羊毛栽培獎勵 ▲緬羊牛馬의飼育獎勵 ▲鐵道及道路의 朝滿連絡施設 ▲水力發電計畫 ▲造船事業의造成

等그大部分은 大工業을 目標로한것이고 朝鮮自體의 需要라는것보다 全日本的需要에應하려는것임을 알수잇다 이러한 大事業을 이르킴에 必要되는 資本은勿論 民間資本의 經營에依할것은 더말할것이어니와 이民間資本의 活動을 爲하여서는 官廳에서 大規模로 助成에 進出케될것은 必定의事實이다. 即 答申案中의 工業의 條目을보아도 事業의 準備工作을爲하야 不少한 努力을 要求하고잇는것이, 處處에 나타나잇다. 그리하야 官廳의 積極的助成에依하야事業資本의活動미레는 密接한關係를 맺게될것이니, 生産과消費를通하야 各方面으로새로운 機構下에 從來보다 利害關係가 달러질것을 豫期치 안흘수업다。

×

다음에交通과金融에關한것을보면, 그가운데도 中小商業者의 利害關係가 一般消費大衆으로도 利害關係가 적지는안흐나 亦是國家에 大事業으로 國際經濟戰에 對應할것을 目標한바가 뚜렷하다. 即, 交通에關한것으로보아도 鐵道網의普及이라던가 港灣의改修, 新築, 通信網의整備等 高級의近代的設備의促進이 되어잇다. 여기에서도 交通運輸의 새로운發達이 따라올것이 目前의事實이다. 새로운發達은 一般에잇는 새로운組織도잇슬것이고 業界自體의發達에따라 多數業者間에 이러날새로운經營의 形態로想像되는것은 여기에도 合同, 統制의促進이 잇슬것이다。答申案에도 各種交通機關의統制를圖할것이라는 題目이다 何必交通機關에만그칠것이아니고, 一般商業의經營統制의 範圍에對하야 海上과陸上을統制하고, 運輸業에 全般的으로統制가必然 豫期치안홀수업다。

×

그러고 이와關聯하야 商業及貿易에關한것을보면 朝鮮內의取引의合理化라는것도 考慮되어잇고 中小商業經營의合理化를爲하야 商業組合의 制度를決定한것等도 考慮되어잇서 그運用에따라서는 中小商業者의 經營上改善과 發達도잇슬것이고, 消費經濟에도 利할바잇슬것이나, 그보다도重要하게 討議된바는, 亦是一般的對外貿易과 滿洲國과의直接貿易 通過貿易에關한것과 이를爲한諸工作이다 朝鮮産業의 國際的地位를向上하려함에『新興産業勃興』의 目標가 重大하다는以上 對外貿易이 盛하여 積極化될것은 當然하다 할것이다 그러면 이와如한貿易, 運輸機關은 從來에도 그러하엿거니와 今後『統制』의 活動 乃至 統制를 說明할것이니 近來 中小商業者의 大衆은 더욱 積極的이어서 이는 新 運輸의 國際市場에 進出하는것이니 漸次안허지는이때에 商品販賣가 增進한다면 그生産의 度가 上昇하야 大資本의傘下에支配될것이다。

×

여기에다 産業界에 大資本의進出은 當然한것이오 特히 活潑해질 모양인데 産業金融에關해서도 벌서『起業金融』의改善을 圖하야 機關의設置로 擴大强化케 될準備도 進行되고잇는모양이다。어떠한모양으로 産業經濟界에 變化가 不遠에 잇슬것은 우리의推測이나 推測以上의것이 잇슬것이다 그러라면 結局으로, 全般的産業經濟의 利益이 合致될것인가 어느程度까지 均霑될것이냐가 問題이다. 當局의問題로도, 稅制改革이라할것도, 日本內地의것에따라, 朝鮮에서도 잇슬것은不遠한 事實로 될수잇는데 이러한 大規模의 經濟關係는 어떠케될것인가, 直接間接으로 影響될바가 적지안흘것이니 千萬가지의새로운 計畫이 다必要하고, 善美를다한것이라해도 그政策의 運用如何로는 政治的効果를 가지기가 問題일것이다. 다시그運用에따라 論할機會를 가지기로하고 이에서끗마친다(끗)

本米穀年度米移出 最高記錄을突破

九百四十六萬四百二十二石

粟輸入百二十一萬石

本米穀年度(昭和十年十一月一日부터 十一年十月末日까지)의 米移出은 九百四十六萬四百二十二石으로 前年보다 六十萬石의 增加이며 過去의 最高記錄인 昭和九米穀年度의 移出高 九百四十二萬五千八百二十六石을 凌駕하야 新記錄을 示한바 이는 朝鮮米의 十年産米實收增과 日本內地의 凶作關係로 出增을 繼續한때문이엇다。

移出의 如斯한 增大는 特히 注目되는것인바 最近五個年을 比較하면(單位石)

昭和七年度	七、五六九、八三七
同 八年度	七、九七二、二九
同 九年度	九、四二五、八二六
同 十年度	八、八五六、七二三
同 十一年度	九、四六〇、四二二

即九年의 最高에對하야 本年度는更히 三萬四千五百石을 增大한것이다 一方米輸出은對滿輸出으로 本年은 半減以下인五萬二千石으로 米의海外輸出은期待키難한것이 明白히되엇다 即 本米穀年度의 米輸移出合計는 九百五十一萬三千四百十三石으로 比前年五百十二萬石의 增加를 示하얏다。

粟輸入은 百二十一萬五千二百九十七石으로 前年에 比하야 二十五萬三千餘石의 激增인것도 注目되엇다。

米及粟輸移出入高

米輸移出高(玄米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十月上旬	一八一	三三五	三四、九〇四	九三、三二四	三五、一七一	九三、四五七
中旬	一七〇	九三〇	八八、〇六一	一三一、四二六	八八、一七一	一三一、三五八
下旬	一七七	一、〇四四	一八一、四九三	一三〇、五九七	一八二、三二〇	一三三、〇二一
計	一、一六八	二、六二七	三〇四、三五四	五五五、二三九	三〇五、一二〇	五五七、八六六
昨年十一月以降年計	五二、九九一	一四四、五〇九	九、四六〇、四二二	八、八五六、七二三	九、五一三、四一三	九、〇〇一、二三二

米輸移入高(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十月上旬	三九	三二	四七、八八七	一、七九三	四七、九二六	一、八二四
中旬	三三	一三	七七、四四四	五三二	七七、四七七	五〇〇
下旬	一五	一〇〇	九〇、〇九六	四八、六六四	九〇、一一一	四八、七六四
計	一三五	一四四	二〇九、三三七	六六、九九三	二〇九、四四〇	六七、一三九
昨年十一月以降年計	九三一	三六八	一、二五六、三四五	一、二九一、一八八	一、二五七、二九六	一、二九一、五五六

粟輸移入高(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十月上旬	九、九九九	四、二九一	—	—	九、九九九	四、二九一
中旬	七、九九二	六、四八八	—	—	七、九九二	六、四八八
下旬	一四、二〇三	四、四五三	—	三三三	一四、二〇三	四、七八六
計	三二、一九四	一五、二三二	—	三三三	三二、一九四	一五、五六四
昨年十一月以降年計	一、二一五、二九七	一、〇六一、八七二	二、一七九	二九、九八七	一、二一七、〇七六	一、〇九一、八五九

벼ㅅ갑이싸서 新米移出不振

例年에업는珍現象

新米移出은 例年 十月中旬부터 活況을 呈하야 十一月에는 船腹不足인것이 常例인데 今年은 正租의 乾燥不充分과 正租低價關係로 各地共히 遲着이 업고 本格的移出을 보기에 至치못하야 各港各船이 모다 積荷小量으로 半船腹狀態이며 各地로부터의 情報에 依하면 當分은 이狀態로 進行할것으로 보이는바 十一月에 入하야 今年과가티移出이업는것은近年稀有現象이라한다

土木指名停止解除

土木談合事件으로 行政處分에 依하야 指名停止를 受한 土木業者의 指名停止解除는 伊達京城土木建築業協會長이 總督府에 解除를 要請하얏섯는데 二日附로서正式解除의指令이잇섯다 指名停止를 解除된者는 協會員三十六名非會員五十四名 計九十名으로 이結果 業者는 代表者의變更 企業官廳에의 出入이自由로되엇다한다

更生水組聯의 歲入缺陷巨額

更生水組聯合會의 今年度正租

移出港在米 三十一萬石

比前年廿六萬石減

全朝鮮各主要港의 十月末現在의 在米高는 三十一萬四千六百四十一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六萬五千九百三十石 前月末에 比하야 十萬四千百二十八石의 各減少인바 그內容은如左하다 (單位石)

日本內地米	七三三
正租	四一、二〇八
玄米	二五九、三四七
白米	一〇、四五八
臺灣米	二、八五五
外米	四〇

朝銀의滿洲業務

—某新銀行에讓渡—

朝銀에서는 滿洲國에 新設될 某銀行에 在滿營業權을 讓渡키爲하야 同行의 新設豫定인 十二月一日前에 臨時株主總會를開催하고 同問題를 附議키로되엇는同時에 滿洲銀行及 正隆銀行의兩行도 各其 臨時總會를 開催하리라한다

朝滿銀業務協定

十二月二十三日이期限

朝銀과 滿洲中央銀行의 業務協定은 十二月二十三日로써 期限滿了인데 右協定의 再次交涉에當하야서는 아즉兩者間에 何等準備工作이 進치안엇다한다 即目下 滿洲國과 折衝中인 新銀行設置에 關한 交涉이 決定되지안코 朝銀의 滿洲國後退에伴한 善後處置가決定되지안엇음으로 이外重大關係를가진 右協定까지는 손을대지못한 實情이라한다

副總裁廢止說

朝銀에서는 松原副總裁가 滿洲新設某銀行에轉出하게되면이것을 機會로行務의 縮減을理由로 副總裁制를 廢止하리라고 關係方面에서 보고잇는一方 一部에서는 林總督府財務局長의 副總裁入行說을 傳코잇다

十二月初大移動

滿洲에 新設될 特殊銀行의首腦者는 目下大藏省과 關係各行에서協議中으로 松原朝銀副總裁의新銀行副總裁 轉出問題가 未決定이나 朝銀으로서는 新銀行總裁로 松原副總裁 或은松田主席理事가 轉出하고 理事에二名과課長及 支店長에 相當人數가轉出되리라함으로 十二月初에伴한大移動이 잇슬것인바 轉出理事候補에는 同問題에 關係가잇는 稻崎支店、大阪支店長等이 有力視된다한다

四大重要工業을 明年度부터助成

重工業과 軍需工業의 朝鮮의助長育成은 大陸經濟의觀點으로近時 그重要性을 加하얏는데 總督府에서는 今後特히 이方面에全力을 傾注키로되어 茂山開發計劃과如한것은 그具體的表現인데、明年度부터 다음의諸工業을對象으로 濃厚한助長政策을取키로되엇다 即 그對象이 되어잇는것은

一、液化工業의 振興助成=液化工業에關한 新法令을 制定하야現在의 滿炭液作事業에補助하는同時에 推定埋藏十三億五千噸을 目標로 無煙炭의 液化事業도積極的으로 擴充함

一、燃料酒精工業의助長=燃料酒精에關한 特殊法規를 制定하야農産原料 木材 籾殼等을 原料로하는것에適當한 助成方法을 講究함

一、製鐵業의 獎勵=獎勵는 現製鐵獎勵法에 準據하고 茂山開發을 促進하야 一個年百萬噸의 特鐵을 生産케하고 製鐵業의振興을 計劃함

一、造船業의助成=船舶業者로서 修繕業者로서 一定한 設備한것에 補助를交附함

以上大體四種目을 第一次的으로 明十二年度와 十三年度부터 具體化케할計畫으로 이重工業에의助成案은 注目된다한다

和信連鎖店 一回大會

商品見本市開催

和信連鎖店은 全朝鮮에 四百十餘店의 連鎖店을 開設키에 至하야 發展되는中인데 今回第一回和信連鎖店大會를 五日午前十時부터 京城府民館에서 開催하고 同六日부터 四日間朝鮮日報社講堂에서 商品見本市를 開催하리라한다

經濟界消息

○鐘紡永登浦工場十五日竣工式=鐘紡京城工場竣工式은十一月十五日午前十時부터 永登浦同工場에서 津田社長臨席下에 官民有力者多數招待盛大히 開催하리라고

○工業協會理事會=朝鮮工業協會에서는 七日正午부터理事會를 開催하고 左記件을 討議하리라고

一、第三回全朝鮮工業者大會決議事項處理件(陳情書作成)

一、同大會決算報告件

取引停止 (十月三十日)

▲京城府武橋町一一番地 諸鐵泰▲京城府唐珠町六三番地新豊醸造場京城支店白成基▲龍仁驛前龍仁商會 李聖根

商況 (四日)

株式 漸衰不振 鈍狀

前場續落

休日을지난今日前場에는 東新百三十九圓 日産八十四圓二十錢 朝新三十六圓五十錢에 寄付하얏는데 東新이漸次 軟化하야 百三十八圓臺로 續落하야 百三十七圓八十錢에 大引하엿스며 日産八十三圓七十錢 大新七十一圓三十錢 鐘新百七十七圓三十錢 朝新三十六圓五十錢에 各各 大引하엿다。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後場保合

後場은 東新百三十七圓九十錢 日産八十三圓三十錢 鐘新百七十七圓二十錢으로 保合이엇다

東新五圓押!

十月末高를보인 市勢는 月初에들어오자 漸次軟化하야 今朝에東新은 百三十七圓六十錢의 低價를보여 去月二十九日의 百四十二圓七十錢으로부터 五圓下落을 告하게되엇는데 이는첫재時期가 마침내 政治季節에當하야 議會制度의改革、明年度豫算을中心으로 政治的波紋을 不免할形勢가되어 東京市場이 不示狀態를보이게됨에따라 各地가모다不勢狀을 繼續하게되엇스며 둘재로는 무엇보다 增稅率이 發表되지 아니한 東新이라 買氣가 微弱하게되리라고 잇다가 三百萬이란 엄청난 大取組를 가지고 月初부터 잇다라 上進할수는 업스니 다시 整理的 商狀을 나타내어 百三十七圓臺에 低落하야 그附近에서 形勢를觀望하면서 새로운低價鍛鍊을할것이아닌가하는 商談이不少하다。그러므로 지금에 追擊賣나 또는盲目的强氣로 買付하는것을避하고 形勢를觀望한後에 愼重히行動하는것이 過誤가업슬것으로보이는데 다만今後 念頭에생각할것은 勿論日中問題、政局推移 稅率等도 注目할것이지만 그보다도 大局的關心、即 모다永續性이잇슬것으로보는 軍需景氣를先驅로한 世界的景氣回復과 世界的인景氣期待와 政府의財政政策 乃至産業政策과의 相關性에 注意를不怠하여야할것이니 日本의景氣如何가 世界景氣에 依存하는바 만흔同時에 國家政策에依存함으로서다

北濱情報=【大阪電話】

日中交涉停頓과 時局動向注視에 人氣不振하야 諸株도整理에 軟調이엇다 紡績株는 實物落이오 日糖은實分商狀이며 軍需關係株는 整理中心의 動向이되여 古河는 二圓低 電工 浦賀 函館은 各一圓七〇錢低로 注目된다

實物前場取引

▲人造肥料 一四〇▲大同産業 [illegible]▲大同電力 [illegible]▲同新 [illegible]▲朝鮮製鍊 [illegible]▲日産고무 [illegible]▲朝鮮火材 [illegible]▲京東重工業 [illegible]▲東京人絹 [illegible]▲朝鮮鐵業 [illegible]▲秋田木材 [illegible] (取引高二四〇枚)

東京國債市【東京電話同盟】

短資高의 情勢에 잇기 때문에 警戒되어 도로혀 高價待機分賣를 誘致한바되어 再次軟化되어 米貨五分半 六分半共히 二十錢低 佛貨도 二十錢下押하고 內國債도 五分三分半이 모다 五錢 乃至十錢低가되엇다

▲甲五分利一〇〇、一五 ▲一回四分一〇〇三五 ▲佛貨四分一九五〇〇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〇二八 ▲第三五分一〇〇七八 ▲一回四分一〇〇 ▲二回四分一〇〇九〇 ▲佛貨一九五一〇 ▲米貨六分半三八三四〇 ▲滿洲公債一〇〇二〇

今日財界 (國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 三等米 一石 [illegible] / 京城白米 百키로 [illegible] /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不變

◆市中金銀價 金一匁 十三圓二五錢 / 銀一匁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 東新 [illegible] / 日産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 大阪棉花 [illegible] / 大阪人絹 [illegible] / 大阪砂糖 [illegible] / 고무FAQ [illegible]

期米 仁川獨高 强硬

前場少軟

再昨後場阪地二十九圓十四錢止와 共히二十七圓十七錢으로 場을止한 當市場은 二十七圓十四錢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十四錢인 昨止同樣의 報를 傳하고 二十七圓十七錢인 亦再昨止의 同樣으로 寄付한後 阪地十一錢으로 小弛하엿다가 十四錢까지 反戾止揚함을 伴하야 二節二十五錢으로 二十一錢에 止하고 中限은 二十一錢으로 二十九錢에 當限은 七十九錢의低價로 八十九錢까지 反撥하엿다

後場反撥

後場은 二十七圓二十三錢인 二十高로 結局한後 四節二十五錢으로 結局四本同價로 三十五錢에 止揚하다

商勢幾分軟味

拂下成績良好로

一般의注目을 集中케하든 政府米五十萬石拂下는 結局四十一萬三百五十二石一斗로 決定되어 比較的好成績을 呈하엿다 勿論新米의出廻遲延과 古米의在品이稀薄한此際인만치 實業界에 直接好感을呈할뿐아니라 當限戰에도 幾分間接的影響이 업지아니하야 今朝阪地當限은 二十九圓八十錢으로 當地當限은 二十七圓七十錢臺로까지低하엿다 三期中가장 强硬하든 當限은 依然一服되고 그反面에 先限은 反히强味를 添하야 當先의 期가幾分 縮緊되엿다 그러나 來七日에는 新米五十萬石의 買上을 決定케될으로 拂下의 影響을受하는 一方으로는 買上의 强材가 업지아니하야 結局保合圈에서 終始할것이나 拂下하여야할政府의 古米가잇고 또今回五十萬石을 모다買上한다할지라도 百五十萬石이나 買上할것이 남아잇슴으로 此拂下와 買上을 同時에 實施하야 米界의 큰波動을 적게할方針을 取할지는 물론다는 一部의 商談도잇다

第二回減收說

當分低落難望

朝鮮米의 第二回豫想은 第一回豫想調査를 마친後稻熱病의發生으로 二割程度의 減收를免치 못하리라는說이 濃厚하다 第二回豫想의 調査는 十月末日現在에 依한것으로 新調査方式으로는 一千七百萬石程度는되나 舊調査方法으로는 一千二百五十萬石乃至一千三百萬石까지의 減收를免치못할것으로 某消息通은傳하며 日本內地米作 第二回豫想도東京方面으로부터 六千五、六百萬石까지의 減收說이잇서 漸次買氣를 助長하고잇다 果然來十日頃의 發表가 何如할지는 斷言키難하나 그러나 日本內地米作을 六千六百萬石으로假定한다하면 그總數量이 八千三百萬石이나되나 그러나舊調査方式에依한 一千三百萬石說을 基調로하면 總數字가 七千九百萬石밖게아니될으로 結局昨年度의朝鮮米의一千七百萬石 日本內地米五千七百五十萬石 合計七千四百五十萬石과 昨年米穀年度中의拂下한政府米四、五百萬石을加算한 總數量七千八、九百萬石과의 거의同一한數字이다 本月一日現在持越高를 四百萬石으로假定한다할지라도 過去一年間의總供給量이 七千四、五百萬石이나된다 昭和十一年産米의需給關係로 昨年과의 大差가없이 明年度端境期의 品薄은어덧다할지라도 過剩米의壓迫을 受하기까지에 至하지안흘것으로 某强氣側은 觀測하고잇다 果如何?

六感

株……人絹株는 올나가고 電力株는 續落하고 그동안에 東新은 다시百三十七圓臺로 下落 ▲政治季節에 들어간지 月初이며 取組는 무거우니 一步退却은不得己하입 ▲實人氣는 依然한 바잇는데 이는 二、二六事件의 恐怖的人氣의 繼續이오 財界現實의 反映이라고 보기에는 政府의 政策이 爲先 不許▲如何튼 當分間 積極行動을 避하고 形勢를 觀望하면서 大局을 보잘것이 可할듯……

米……政府米拂下는 豫定數量五十萬石에 對하야 四十一萬餘石으로 決定되엇스니 이만하면 成績良好?▲아즉도百十六萬餘石이나 남아잇스니 한번 二百萬石買替를 宣言한政府로서 繼續賣却할것만은 事實 ▲그러치마는 拂下하는反面에 그만한 數量의買上條件이 부터잇스니 弱材로만보는것보다 찰아리 强材로보는것이 妥當치 안흘는지몰라▲그러고 第二回豫想은 日本內地와 朝鮮이 共히 減收說이 잇스나 此에는 確信키難할것 잇고 朝鮮米의 二割減收는 免치못한다고 云云 果?

米 仁川 東益商店 / 光皿 / 株 金益證券株式會社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地正米

群山不勢

拂下好成績과定期軟調에 日本內地入注가 到來치안코 月初의 市況不勢로 都賣側도 沈默을지키고잇다 ㊂三等二八、五〇 四等二八、四〇 一等白米 一二、四〇

木浦反落

日本內地入注中絶로 買氣가 全혀 不振하고 또 奧地實物이 逐日增加하는데 壓迫되어 唱價一帶에 四十錢崩落이엇다 ㊂三等二八、八〇 四等 一等白米 一三、〇〇

京城不冴

當用小口買가 散見뿐이오 場面은 極히 活氣가 업서 市勢는 十錢軟化이엇다 ㊂三等 二九、〇〇 四等 二八、七〇 一等白米 一二、五〇

仁川低含

日本內地賣行不振에 一般은 買終盤의 態度로 市況은 極히 閑散裡에 終始하엿다 ㊂三等 二九、〇〇 四等二八、七〇 一等白米 一二、一〇

釜山活況

實物增加와 定期不勢로 市勢는 三十錢軟化하엿스나 當用側의 採算的 買進에 實買는 順調로 進行되어 場面은 오래만에 商盛을 呈하엿다 ㊂三等 二八、九〇 四等二八、六〇 一等白米 一二、三六

大邱少弛

拂下好成績에 日本內地의 買氣가 不振하고 또 定期低로 氣配五錢 軟化이엇다 ㊂三等 二八、三〇 四等二八、〇〇 一等白米 一一、九〇

堂島前場實買

堂島前場實買는 如左하다 賣方 地場軟派 買方 地場派·東京側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株式 物産 仁川本町 / 期米 仁川本町 / 玉 / 柳來恒取引店

期米 仁川 仁 仁川海岸町 紺谷取引店 コンタニ

金銀 金土金石 分析買賣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二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株式 (四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實買高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四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實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正米市場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金融 (四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 (四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四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綿油市價 [illegible]

◆綿抨粕市價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日本穀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安東大豆 [illegible]